

Media Coverage True Parents' Birthday and Africa Summit

Media Coverage of True Parents' Birthday and Africa Summit - Yun Ki Choi - March 15, 2018

2018 AFRICA SUMMIT





한학자 총재 기조연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기조연설



**기조연설자인 한학자 총재를 소개하는
디온쿤다 트라오레 말리 전 대통령**



셰이크 만수르 디우프 2018 아프리카 서밋 운영위원장 환영사



2018 아프리카 서밋 전경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리더십과 굿 거버넌스 어워드 (Leadership and Good Governance Award)상 수상



2018 아프리카 서밋을 취재하는 세네갈 국내외 언론사



세네갈 전통민요를 부르는 리틀엔젤스 예술단의 특별공연

천주평화연합, '2018 아프리카 서밋' 세네갈서 개최



KBS 뉴스 천주평화연합, '2018 아프리카 서밋' 세네갈서 개최

천주평화연합은 오늘 서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신아프리카 공영과 보편적 가치라는 주제로 아프리카 서밋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서밋에는 세네갈 대통령 등 60여개국 정계 인사와 종교, 시민단체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세네갈 대통령은 아프리카는 미래의 대륙이며 개발을 통해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 평화를'...천주평화연합 결의·선언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민간 국제기구인 천주평화연합이 세네갈에서 공생과 공영의 주제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아프리카 60여 개국 지도자들은 아프리카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 종교, 학계, 언론, 예술, 스포츠 등의 지도자들을 연결하는 천주평화연합은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내전으로 공동체가 파괴된 아프리카는 지속된 극심한 가뭄과 정파·종파 분쟁까지 겹친 상황.

한학자 가정연합 총재는 '신 아프리카의 공생과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1분현장] 한학자 총재 "아프리카-한국 잇는 평화고속도로 건설" 제안

현직 대통령, 수상, 국회의장 포함 60개국 1200명 지도자 참석
아프리카 대륙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및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창립
참석자들 평화결의와 건의사항 담아 '다카르 평화선언' 발표
노예무역의 중계지 고레섬에서 해방해원식 거행



1분현장
천주평화연합 2018 아프리카 서밋

한학자 천주평화연합 총재
인류가 서로 소통하고 전쟁이 필요 없는 높고 낮은이 없는 자유·평등·평화·통일의 행복한 지상 천국을 이루는데 있어서...

천주평화연합은 18일부터 19일까지 '2018 아프리카 서밋'을 서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에 위치한 압두 디우푸 국제센터에서 '신아프리카: 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라는 주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 아프리카 서밋'은 한학자 총재와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을 비롯한 현직 대통령 및 대통령 대행 20명, 전직 대통령 및 수상 11명, 현직 장관 35명, 국회의장 및 국회의부의장 17명, 국회의원 295명 종교지도자 88명, 족장 110명, 여성지도자, 비즈니스 리더, 언론관계자, 청년지도자, 시민단체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리비아, 말리, 수단,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이집트,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콩고 민주공화국 등 60여 개국에서 총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학자 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은 아프리카가 하나님을 모시는 신(神)아프리카로서 세계 앞에 드러날 수 있는 역사적이며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아프리카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하늘섭리의 중심에 서서 새 역사를 출발하는 아프리카 대륙이 돼야 한다"고 축복했다.



1분현장
천주평화연합 2018 아프리카 서밋

한학자 총재·마키살 세네갈 대통령 등 아프리카 각계 지도자 1,200명 참석

이어 한 총재는 "첫 번째 아프리카 서밋 개최지로 세네갈을 택한 이유는 하늘이 이 때를 위해 당신이 걸러나 온 준비된 의인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에서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 유럽, 유라시아, 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통하는 평화고속도로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한 총재는 "오늘날 인간의 무지로 황폐해진 지구는 미래 인류에 희망이 될 수 없기에 아프리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건강한 아프리카로 만들자"며, "우리 다함께 손에 손 잡고 하나님 앞에 한 형제자매로서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실현하는 그날을 향해 종진군 하자"고 설파해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2018 아프리카 서밋' 개최식은 이맘 셰이크 아흐메드 티디안 시셰(이슬람교)와 짐바브웨 사도기독교연합회 회장인 요하네스 엔당가 대주교(기독교)의 초종교 기도로 시작됐다. 이어 셰이크 만수르 디우프(세네갈 이슬람 지도자) 2018 아프리카 서밋 운영위원장 환영사, 토머스 월시 UPF 세계의장 연설, 리틀엔젤스 예술단 특별공연(세네갈 전통민요), 디온쿤다 트라오레 말리 전 대통령의 기조연설자 소개, 한학자 총재 기조연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리더십과 굿 거버넌스 어워드상 수상,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1분현장
천주평화연합 2018 아프리카 서밋

한학자 천주평화연합 총재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희망봉에서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 유럽대륙, 유라시아, 아시아로 해서

한학자 총재의 기조연설 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에게 굿 거버넌스 상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수상 후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2018 아프리카 서밋 첫 개최를 세네갈에서 개최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천주평화연합의 활동이 국민 간의 화합과 통일, 그리고 국민 간의 다양성 존중을 보게 될 때 세네갈은 휴머니즘 비전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키 살 대통령은 "한학자 총재께서 아프리카까지 오셔서 수백년 동안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온 아프리카 대륙에 희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아프리카는 미래의 대륙이고 그 미래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조금 전 주신 굿 거버넌스 상금 10만불은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아원에 기부할 것이며, '2018 아프리카 서밋' 주제가 '신아프리카: 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인데 저는 신아프리카를 믿으며, 번영하는 아프리카를 믿기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전쟁 종식만이 아니라 개발을 통해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분현장
천주평화연합 2018 아프리카 서밋

평화결의 건의사항 담은 '다카르 평화선언' 발표

'2018 아프리카 서밋'은 이어 각국 대통령 연설, 특별발표('새마을운동' 및 '커피농장이 니슈어티브' 소개, 국제평화고속도로 소개, '인성교육' 및 '가정 가치' 소개, 선학평화상 소개, 국제과학통일회의), 분과별 모임(각국 정상, 국회의원, 종교지도자, 족장, 여성지도자, 비즈니스 리더, 청년 지도자), 리틀엔젤스예술단 문화공연, 아프리카 대륙 의원연합(IAPP) 창립, 아프리카 대륙 종교인연합(IAPD) 창립, 아프리카 대륙 세계평화종교인연합(ICAPP) 창립, 다카르 평화선언 발표, 폐회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 동쪽 3km 앞바다에 있고 이전에는 노예무역의 중계지로 악명이 높았던 고레 섬을 종교지도자 및 중단대표들이 찾아가 해방해원식을 거행해 의미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평화결의와 건의사항을 담아 '다카르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2018 아프리카 서밋'은 의원연합 창립의 토대 위해 개최됐다. 의원연합은 상생과 공영의 길을 추구하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영구적 평화의 세계 건설과 인류발전을 위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 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해 창립하게 됐다.

영토분쟁, 종교분쟁, 인종갈등, 환경훼손, 기후변화, 폭력적 극단주의, 빈곤과 기아,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핵 확산 등 평화세계 실현을 방해하고 인류발전에 큰 위협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와 평화를 위해 세계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연대와 협력을 이루는 국제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천주평화연합(UPF)은 현재 유엔 경제이사회(ECOSOC) 특별자문기관으로 등록된 단체로 2005년 9월 12일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뉴욕에서 창설해서 세계 154개국에 UPF 평화대사들의 네트워크를 가지는 국제적인 NGO단체다. '참사랑은 UPF의 이상과 철학'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분쟁을 해소하려고 정치, 종교, 학계, 언론, 예술, 스포츠 등의 지도자들을 연결시키는 소프트파워의 역할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천주평화연합, '2018 아프리카 서밋' 개최



천주평화연합은 19일(오늘) '2018 아프리카 서밋(정상회의)'을 서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에 위치한 압두 디우푸 국제센터에서 '신아프리카: 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라는 주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 아프리카 서밋'에는 한학자 천주평화연합 총재와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60여개국 정계 인사와 종교, 시민단체, 청년지도자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아프리카는 미래의 대륙이며 전쟁 종식만이 아니라 개발을 통해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륙별 서밋의 토대가 된 세계 각국 의원연합은 폭력적 극단주의와 빈곤, 핵 확산 등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결성됐다.

천주평화연합 '2018 아프리카 서밋' 세네갈 다카르서 개최



↑ 천주평화연합 '2018 아프리카 서밋'

천주평화연합은 오는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018 아프리카 서밋(Africa Summit)'을 서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에 위치한 압두 디우푸 국제센터(CICAD)에서 '신아프리카: 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라는 주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 아프리카 서밋'은 한학자 총재와 마키 살(Macky Sall) 세네갈 대통령을 비롯한 현직 대통령 및 대통령 대행 20명, 전직 대통령 및 수상 11명, 현직 장관 35명 등 60여 개국에서 총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학자 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은 아프리카가 하나님을 모시는 신(神)아프리카로써 세계 앞에 드러날 수 있는 역사적이며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아프리카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하늘섭리의 중심에 서서 새 역사를 출발하는 아프리카 대륙이 돼야 한다"고 축복했다.

이어 한 총재는 "첫 번째 아프리카 서밋 개최지로 세네갈을 택한 이유는 하늘이 이 한 때를 위해 당신이 길러온 준비된 의인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에서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 유럽, 유라시아, 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통하는 평화고속도로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2018 아프리카 서밋' 개최식은 이맘 셰이크 아흐메드 티디안 시씨(이슬람교)와 짐바브웨 사도기독교연합회 회장인 요하네스 엔당가 대주교(기독교)의 초종교 기도로 시작됐다. 이어 셰이크 만수르 디우프(세네갈 이슬람 지도자) 2018 아프리카 서밋 운영위원장 환영사, 토머스 월시 UPF 세계의장 연설, 리틀엔젤스 예술단 특별공연(세네갈 전통민요), 디온쿤다 트라오레 말리 전 대통령의 기조연설자 소개, 한학자 총재 기조연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리더십과 굿 거버넌스 어워드(Leadership and Good Governance Award) 상 수상,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각국 대통령 연설, 특별발표('새마을운동' 및 '커피농장이니슈어티브' 소개, 국제평화고속도로 소개, '인성교육' 및 '가정 가치' 소개, 선학평화상 소개, 국제과학통일회의), 분과별 모임(각국 정상, 국회의원, 종교지도자, 족장, 여성지도자, 비즈니스 리더, 청년 지도자), 리틀엔젤스예술단 문화공연, 아프리카 대륙 의원연합(IAPP) 창립, 아프리카 대륙 종교인연합(IAPD) 창립, 아프리카 대륙 세계평화축장연합(ICAPP) 창립, 다카르 평화선언 발표, 폐회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노예무역의 중계지로 악명이 높았던 고레 섬을 종교지도자 및 종단대표들이 찾아가 해방해원식을 거행해 의미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평화결의와 건의사항을 담아 '다카르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한편, 천주평화연합(UPF)은 현재 유엔 경제이사회(ECOSOC) 특별자문기관으로 등록된 단체로 2005년 9월 12일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뉴욕에서 창설해서 세계 154개국에 UPF 평화대사들의 네트워크를 가지는 국제적인 NGO단체다. '참사랑은 UPF의 이상과 철학'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분쟁을 해소하려고 정치, 종교, 학계, 언론, 예술, 스포츠 등의 지도자들을 연결시키는 소프트파워의 역할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개헌안,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국회 개헌특위 試案 무슨 내용이 담겼나
 개헌의 변천사 - 제헌헌법부터 1987헌법까지
 트럼프의 연두교서에 나타난 대북인식
 행정권 장·차관 22명 중 15명이 민주당자

김대중 정권, 국정원 특활비 사용 의혹
 정몽헌, DJ정권 실세에게 거액 뇌물
 '상하이 총영사' 박선원은 노무현 정부의 BDA해결사였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3일간 150억 날린 박원순

6·13 지방선거 황태이 인터뷰
 주상호(민주당): "박원순, MB보다 시민 불만 덜어 주지 못했다"
 김태일(자유한국당): "이재명 시장보다는 내가 안정감 있어"
 유국인(자유한국당): "갈 곳 없는 보수, 우리가 품어 안겠다"

달서 탐사 무기연기 과학계의 불만
 평창 올림픽 北 단장 90세 김영남의 김일성 3대 모시기
 김석호 국회정보위원장 "北 최고실세는 김영철... 64세 김경희가 말던 직책 30세에 차지"
 대통령의 최고 腹心 문정인의 24년간 발연 어떻게 변했나?
 백승구 기자 eaglebsk@chosun.com

월간조선 CEO TIME



'2018 아프리카 서밋'이 지난 1월 17일(현지시각)부터 3일간 서(西)아프리카 세네갈 수도(首都) 다카르(Dakar)에 위치한 국제컨퍼런스센터 '압두 디우 푸 국제센터(CICAD)'에서 열렸다. 한국의 민간 외교사절인 리틀엔젤스예술단이 개회식에서 세네갈 전통민요를 불러 큰 호응을 얻었다.



빈곤·분쟁·테러없는 '뉴 아프리카' 내걸고 개발과 교육으로 세계로 가자!

- ◎ UPF, '2018 아프리카 서밋' 세네갈서 개최... 현직 대통령·수상·국회의장 등 60개국 1200여명 참석
- ◎ 각국 지도자들, 국가간 협력과 안정 및 발전방안 논의... '다카르 선언' 발표
- ◎ 빈곤·분쟁·테러 해결하고 개발·청소년 교육에 집중
- ◎ 아프리카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및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창립

백승구 기자 eaglebsk@chosun.com

<들판을 적시는 그대의 아름다운 검은 피 / 그대가 흘린 땀의 피 / 노예 생활의 노동 / 아프리카 말해 보라 이것이 당신인가 / (중략) / 눈부신 외로움으로서 있는 / 바로 이 나무 / 이것이 아프리카다 / 새싹을 내미는 끈기 있게 고

집스럽게 다시 일어서는 / 그리고 그 열매에 자유의 쓰라린 맛이 / 서서히 배어 드는 이 나무가>

세네갈 시인(詩人) 다비드 디오프(David Diop · 1927~1960)가 쓴 '아프리카'의 일부다. 아프리카에 대한 향수(鄉愁)와 서양 열강의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을 노래한 시(詩)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세네갈은 1960년에야 독립했다. 세네갈 지식인들은 모국(母國) 해방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독립의 피'를 뿌렸다.

세네갈의 초대 대통령이자 시인이었던 레오폴드 세다르 생고르(Leopold Sedar Senghor · 1906~2001)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프랑스를 중심으

로 '아프리카 저항문학'을 주도했다.

세네갈처럼 아프리카 국가들은 태평양 전쟁 이후 20여 년에 걸쳐 독립국가로 전환했다. 현재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는 50개가 넘는 독립국이 있다. 물론 지금의 아프리카는 빈곤과 분쟁 그리고 원조(援助)의 이미지로 뒤범벅돼 있다.

하지만 이곳에는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를 갖고 있다. 오래됐으면서도 현대적이고, 고난 속에서도 영광의 빛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오늘날의 세계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됐을 뿐이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아프리카, 스스로에 의해, 스스로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프리카를 믿는다"고 역설했다.

새로운 아프리카, 공생·공영·공의와 보편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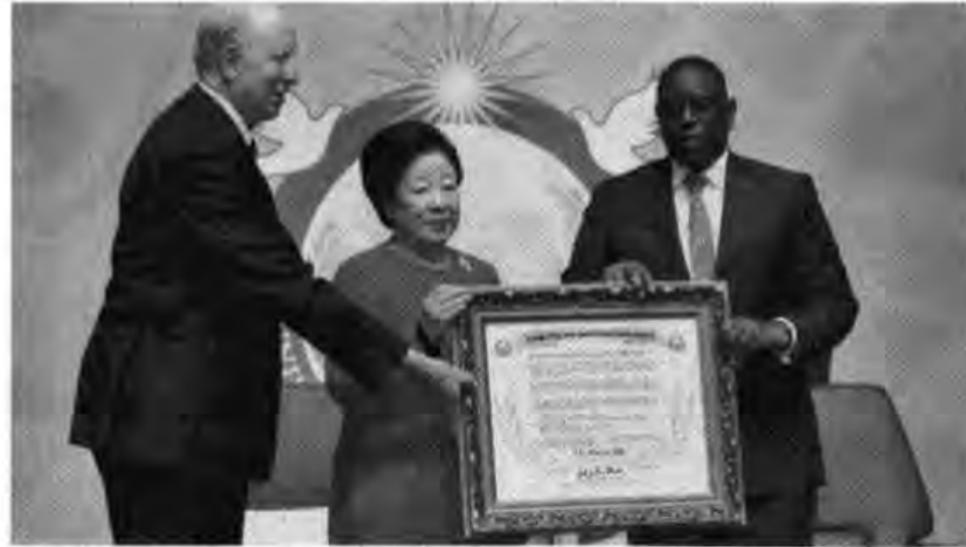
기자는 최근 7박 9일의 짧은 일정으로 아프리카 세네갈을 다녀왔다. 현지 취재에 앞서 아프리카 관련 서적을 찾다가 여행기(旅行記)를 제외한 전문서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짧은 체류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아프리카는 '새로운 아프리카'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출발이 올해 처음 열린 '2018 아프리카 서밋(Africa Summit)'이다.

이번 '아프리카 서밋'은 지난 1월 17일(현지시각)부터 3일간 서(西)아프리카 세네갈 수도(首都) 다카르(Dakar)에 위치한 국제컨퍼런스센터 '압두 디우푸 국제센터(CICAD)'에서 열렸다. 올

해 처음 열린 '아프리카 서밋'에는 마키 살(Macky Sall) 세네갈공화국 대통령을 비롯해 아프리카 국가의 현직 대통령 및 대통령 대행 20명, 전직 대통령과 수상 11명, 현직 장관 35명,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17명, 국회의원 295명, 종교 지도자 88명, 족장 110명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의 국적은 세네갈,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리비아, 말리, 수단,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이집트,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주요 국과 인근 중동국가 등 60여 개국에 달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신아프리카: 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였다.

UPF(Universal Peace Federation·천주평화연합·의장 토마스 월시)가 세네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번 행사를 주관했다. UPF는 유엔(UN) 경제이사회(ECOSOC) 특별자문기관으로 등록된 글로벌 비정부기구(NGO)다. 2005년 문선명·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뉴욕에서 창설했다. 현재 154개국에서 UPF 평화대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정치, 종교, 학계, 언론, 예술, 스포츠 등 각국 지도자들을 연결시키는 소프트 파워 역할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마스 월시(Thomas Walsh) UPF 의장은 '2018 아프리카 서밋'에 대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대륙에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



'2018 아프리카 서밋'을 주최한 UPF는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에게 '리더십과 굿거버넌스 어워드(Leadership and Good Governance Award)'를 수여했다. 왼쪽부터 토마스 월시 UPF 세계의장, 한학자 총재, 마키 살 대통령.

련했다"며 "아프리카 각국 지도자들과 함께 이곳 세네갈에서 평화세계를 향한 첫 출발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학자 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신(神) 아프리카 대륙이 돼야 한다"면서 "최남단 희망봉에서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유럽, 유라시아, 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통하는 평화 고속도로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2018 아프리카 서밋' 개최식은 이맘 셰이크 아흐메드 티디안 시셰(이슬람교 대표)와 짐바브웨 사도기독교연합회 회장 요하네스 엔당가 대주교(기독교 대표)의 기도로 시작됐다. 이어 셰이크 만수르 디우프(세네갈 이슬람 지도자) '2018 아프리카 서밋' 운영위원장의

환영사,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중간에 한국의 민간 외교사절인 리틀엔젤스에술단의 특별공연도 진행됐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처음 열리는 '2018 아프리카 서밋'을 세네갈에서 개최한 데 대해 한학자 총재님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아프리카는 미래의 대륙이며 그 미래가 이번 회의를 통해 시작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전쟁 종식뿐만 아니라 개발을 통해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아프리카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가 세네갈에서 최초로 열리게 된 데는 마키 살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크게 기여했다. 마키 살 대통령은 내전(內戰)을 겪은 부르키나 파소에 평화유지군을 보내 사태를 해결

했고, 감비아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아프리카 서밋'도 마키 살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에 의해 성공적으로 열렸다. 회의가 열린 국제컨퍼런스센터 '압두 디우푸 국제센터'도 이번 행사를 위해 건설됐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손꼽히는 최고 수준의 회의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평화결의·추진 사항 담은 '다카르 평화선언' 발표

'2018 아프리카 서밋'은 각국 대통령 및 지도자들의 비전 소개를 비롯해 특별발표, 분과별 모임, 아프리카 대륙 의원연합(IAPP) 창립총회, 아프리카 대륙 종교인연합(IAPD) 창립 총회 등을 담았다. 폐회식 때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의 평화결의와 향후 추진 사항을 담은 '다카르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평화선언은 "우리는 빈곤, 분쟁, 환경 파괴, 의료 서비스 부족과 어린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 부재를 비롯해 이 시대 인류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을 이번 서밋 기간 동안 논의했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굿거버넌스, 기간시설, 교육 커리큘럼, 기업가 정신,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초종교 대화 및 협력에 대한 발전의 기회를 탐구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세계평화국회의원



마하마네 오스마네(Mahamane Ousmane) 전(前) 니제르 대통령.

연합 아프리카 대륙본부,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세네갈 국가본부,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아프리카 대륙본부, 세계평화족장연합 아프리카 대륙본부,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발전과 커피 농장 이니셔티브, 피스로드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선포한다"고 밝혔다.

마하마네 오스마네(Mahamane Ousmane) 전(前) 니제르 대통령(1993~96)은 이번 회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번 회의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시사(示唆)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현재 아프리카 대륙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심각성과 해결책에 대한 고민을 심층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을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각국 지도자들은 서로 대화하고 교류해야 합니다. 또 아프리카 내 여러 분쟁이 종교와 밀접히 연결돼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 간 교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스마네 전 대통령은 “아프리카 대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사람

레베렌드 장 피에르 카디마(Jean-Pierre Kadima) 콩고민주공화국 성화기술대학교 이사회 의장.



들의 의식을 높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발전의 밑거름인 ‘교육’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개발’에 앞서 ‘교육’을 앞다퉈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현재 아프리카 대륙은 민주주의 문제, 이슬람 등 종교분쟁, 부패와 분쟁, 테러 등 복잡한 현안(懸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문제는 아프리카의 토착 언어, 역사, 인종과 부족, 문화와 제도, 환경 등과 밀접히 얽혀 있다. 아프리카만의 특별한 ‘속성(Africanness)’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지배해 온 서구사회는 지난 50년 동안 2조 달러 이상의 해외 원조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원조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빈곤 퇴치에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잠비아 출신의 아프리카 경제학자 인 담비사 모요(Dambisa Moyo) 박사는 “원조가 빈곤의 순환을 영속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무산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원조는 개발의제의 핵심에 놓여 있다”며 “1970년대 이후 거액의 원조금이 아프리카 대륙에 쓰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길이 없고 결론적으로 원조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단언했다.

《아사히신문》 기자 출신으로 30년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행사 마지막 날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서 동쪽 해상(海上)으로 3km 떨어진 ‘고레섬’을 찾아 노예해방 해원식을 거행했다. 고레섬은 과거 노예무역의 중계지로 악명 높은 곳이다.

이상 아프리카 현지를 취재해 온 마쓰모토 진이치(松本仁一)는 아프리카 국가를 크게 네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째, 정부가 국가형성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나라(보츠와나), 둘째 정부가 국가형성에 대한 의욕은 있지만 운영기술이 미숙해 진척이 더딘 나라(가나·우간다·말라위), 셋째 정부의 고위층들이 사리사욕만 추구하느라 국가형성이 늦어지고 있는 나라(케냐·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대부분의 국가), 넷째 지도자가 이권에만 관심을 가질 뿐 국가발전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나라(짐바브웨·앙골라·수단·나이지리아) 등이다.

마쓰모토 진이치 기자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은 세 번째 유

형에 속한다. 요컨대 정부 지도자들의 부패로 국민이 희생되고 있다.

이번 아프리카 서밋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최선책으로 ‘교육’을 강조하고 나섰다. 짐바브웨에서 온 한 지도자는 국가발전 분과모임에서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의 부모들은 하루하루 벌어들여 먹고살기 위해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생계 현장에 내몰고 있다”며 “여기 계신 각국 지도자들은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나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소국(小國) 상투메 프린시페 민주공화국의 총리(2002~2004) 출신으로 현재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마리아 데 네베스(Maria Des Neves) 의원은 “새로운 아프리카는 청소년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아프리카 대륙이 분쟁에서 벗어나 번영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함께 ‘청소년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부패 척결과 민주주의 발전을 강조한 이들도 있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성화기술대학교 이사회 의장인 레베렌드 장 피에르 카디마(Jean-Pierre Kadima)는 “젊은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며 “부패한 정치권력을 청산하고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하루빨리 정착시키는 것이 아프리카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2018 아프리카 서밋’은 아프리카 대륙 정치지도자로 하여금 ‘새로운 아프리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한 자리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서밋 기간에 ‘아프리카 대륙 의원연합(IAPP)’이 창설됐다.

아프리카 서밋에 참석한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은 행사 마지막 날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서 동쪽 해상(海上)으로 3km 떨어진 ‘고레섬’을 찾아 노예해방 해원식을 거행했다. 고레섬은 과거 노예무역의 중계지로 악명 높은 곳이다. 오귀스탱 생

고르 고레섬 시장은 “넬슨 만델라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같은 세계적 인사들이 방문해 온 이곳은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던 곳이고 많은 사람이 추방당했던 곳”이라며 “이제는 인간의 자유와 인류평화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와 미래 이끌어 가는 당사자로 인정받아야”

기자는 아프리카 대륙 지도자들이 폐회식 날 서로를 얼싸안고 자축하는 모습에 큰 인상을 받았다. 빈곤과 분쟁으로 얼룩져 있는 아프리카의 ‘기존’ 이미지가 절대 진실은 아니었던 것이다. ‘밝은 미래’를 향한 아프리카의 서광(曙光)을 볼 수 있었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이번 서밋에 모인 1200여명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새로운 아프리카를 믿습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아프리카, 스스로에 의해, 스스로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프리카를 믿습니다. 역사의 부담과 불균형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근면하며, 독창성이 풍부한 대륙입니다. 창조하고, 노력하고, 전진하는 아프리카는 미래의 대륙이 될 것이라는 밝은 전망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가는 당사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노력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다. UPF는 유엔 경제이사회 특별자문기구다. 지구촌 분쟁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해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왔다. 아프리카 서밋은 그 결과물 중 하나다. 이번 서밋을 통해 아프리카가 새롭게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

1월18일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서 만난 토마스 월시 UPF(천주평화연합) 의장의 말이다. UPF는 1월18~19일 다카르 소재 압두 디우푸 국제센터(CICAD)에서 '2018 아프리카 서밋'을 개최했다. '신아프리카: 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서밋에

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대화의 중요성을 일러주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월시 의장과 의 일문일답.

UPF에 대해 설명해 달라.

“UPF는 유엔 경제이사회 특별자문기구로 2005년 9월 문선명·한학자 총재가 뉴욕에서 창설한 순수 민간 국제평화운동 기구다. 초종교 및 초인종 평화 실현을 모토로 전 세계 154개 나라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전 세계의 화악고로 전략한 중동뿐 아니라 발칸반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처음 서밋을 개최했다.

“아프리카는 그동안 극심한 빈곤과 가뭄, 종파 분쟁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최근 민주적 국가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 중국이나 인도가 빈곤국가에서 주요국으로 격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200명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뉴아프리카'를 선언한 것이다. 이번 서밋은 문선

“한반도 평화 정착 위해 평양 서밋 개최도 고려”

인터뷰 토마스 월시 UPF 의장 “정부 못하는 일이지만 민간에선 가능”

는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을 포함해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정부 요인, 종교 지도자, 부족장 등 아프리카 60개국에서 1200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각국 지도자들은 이날 지속 가능한 평화와 인류 발전을 위한 아프리카대륙 국회의원연합(IAPP)과 종교인연합(IAPD), 세계평화축장연합(ICAPP) 등을 출범시켰다. 이어 평화 수호에 대한 결의를 담은 '다카르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한학자 총재는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에서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 유럽, 아시아, 한국으로 통하는 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월시 의장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면 평양에서 서밋을 개최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며 “북한은 대화를 통해 얻을 것이 많다. 기회가 된

명 총재 탄신 100주년, 한학자 총재 탄신 77주년을 2년 앞두고 있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개최국으로 세네갈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

“서밋 개최를 위해 지난 6개월간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과 세 차례 면담을 했다. 아프리카의 비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덕분에 세네갈 국회나 관련 부처들의 지원을 많이 받았다. 마키 살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상을 수상했다.”

UPF는 순수 민간 기구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현재 기후나 빈곤, 극단주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중동이나 발칸반도의 경우 지구촌의 '화악고'로 전략했다. UPF는 그동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협력과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하나님 아래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단 하나의 명제를 위해서였다. 그런 노력이 열매를 맺은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 지도자들 역시 이 논리에 공감했기 때문에 이번 서밋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중남미, 유럽, 아시아 등으로 평화운동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세네갈에 성공적으로 도입됐다고 들었다.

“과거 한국의 발전 모델인 새마을운동이 최근 아프리카의 새로운 개발 모델로 떠

오르고 있다. 세네갈과 우간다 등 아프리카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경제발전 모델로 새마을운동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 시작한 운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적인 사례다. UPF도 아프리카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981년 문선명 총재가 세계 평화고속도로를 제창한 것처럼, 아프리카에 철도나 고속도로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해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번 서밋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도 현재 남북 고위급회담이 최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렸다. 북한은 이 회담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포츠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열쇠다. 남과 북이 경쟁된 상황에서는 정부가 못하는 일을 스포츠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다. 남한은 전략적 참을성을 가지고 북한과 꾸준히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UPF 역시 하드파워보다 소프트파워에 집중하고 있다. 6자회담과 같은 정부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비전을 공유하는 민간 외교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도 대화의 중요성을 일러주고 싶다. 신뢰는 대화와 상호존중을 통해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은 환태평양 시대다. 아시아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발전 가능성이 많은 나라다. 대화를 통해 얻을 것이 많다는 얘기다. 기회가 된다면 평양에서 서밋을 개최하고 싶다. 이 일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남북대화를 마중물 삼아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독특하다. 사업가 출신으로, 거친 발언으로 유명하다. 모든 것을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화가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가 이익이라고 판단되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이석 기자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평화는 희망사항 아니라 삶의 선택”

2015년 한국 방문해 새마을운동 전수 요청하는 등 인연도 깊어

지난해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가진 첫 번째 정상회담 국가는 세네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마키 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 북핵 문제 관련 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월18일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서 만난 마키 살 대통령의 생각은 여전했다. UPF(천주평화연합)와 세네갈 정부가 1월 18~19일 다카르 소재 압두 디우푸 국제센터(CICAD)에서 공동 개최한 ‘2018 아프리카 서밋’ 현장에서였다. ‘신아프리카: 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서밋에는 마키 살 대통령을 포함해 아프리카 전·현직 대통령과 종교지도자, 부족장 등 1200명과 UPF 창시자인 한학자 총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마키 살 대통령은 “평화는 희망사항이기보다 삶의 선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대로 전쟁의 역사는 전 세계의 비극이었다. 어디에서 전쟁이 발발하든 파멸과 유혈, 짓밟힌 순결, 고아와 미망인의 슬픔, 유가족들의 고통이 잉태된다”며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등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우선되고, 전 세계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인간성이다. 이 인간성 회복과 아프리카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오른쪽)이 1월18일 세네갈 다카르에서 UPF 주최로 열린 ‘2018 아프리카 서밋’에서 아프리카 공동 번영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 받아 한학자 총재(가운데)로부터 ‘굿 거버넌스 상’을 수여받고 있다. © 이석 기자

대대로 전쟁의 역사는 전 세계의 비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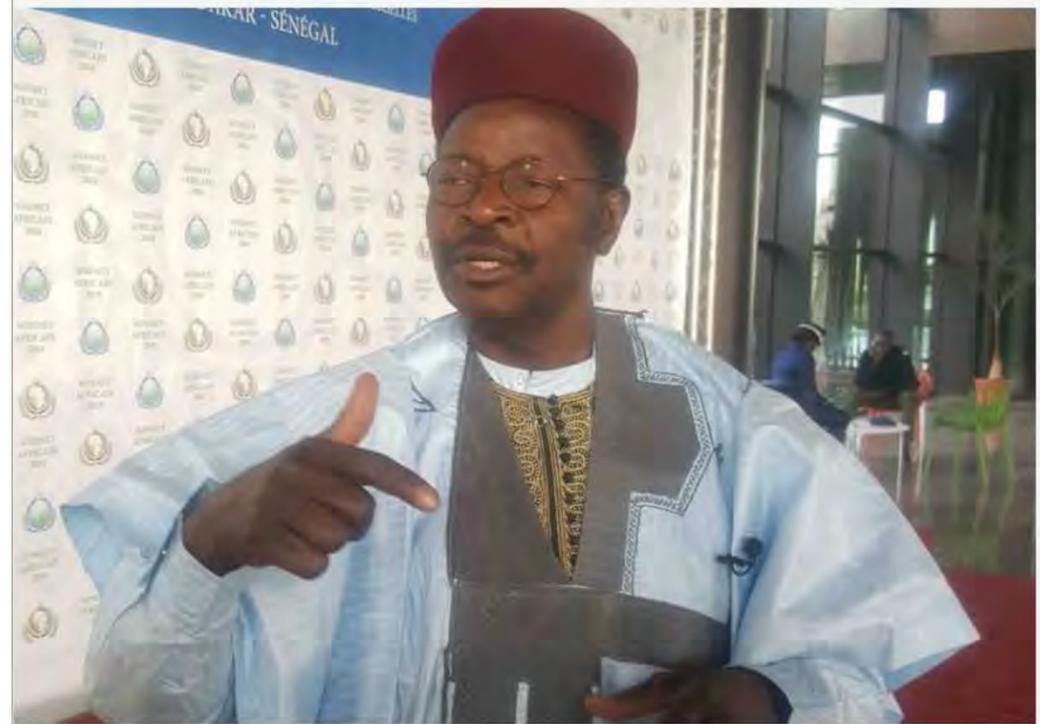
세네갈은 한국과 경제 및 군사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세네갈은 현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중 한 곳이다. 마키 살 대통령은 2015년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쌀농사 재배 기술과 새마을운동 정신을 전수에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국은 세네갈에 조성된 영농시험단지에 기술과 인력을 지원했고, 쌀 생산량이 현재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화답하는 의미로 세네갈 공군은 2016년 한국산 훈련기(KT-1) 4대를 도입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마키 살 대통령은 1월18일 기조연설을 앞두고 ‘굿 거버넌스 상’과 함께 상금 10만 달러를 수여 받았다. 그는 이 상금을 장애 아동 단체인 그랜드-요프의 탈리부다보 센터 등 두 곳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기자는 이날 서밋 현장에서 마키 살 대통령과 함께 마하마네 우스만 전 니제르 대통령도 인터뷰 할 기회가 있었다.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 위치한 니제르는 1960년 8월 프랑스에서 독립했다. 1974년 4월 군체 육군 중령이 군사 쿠데타를 주도해 정권을 장악한 후 군사 독재체제를 이어오다, 1992년 12월 다당제 아래 대선 및 총선을 실시하는 내용의 헌법을 채택하는 등 여러모로 정치나 사회 상황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마하마네 우스만 전 대통령은 1993년 3월 9개 야당연합(AFC)의 사회민주당(CDS) 당수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역시 한국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는 “북한이나 남한 모두 어쨌든 한국이다. 같은 문화를 가진 한 민족”이라며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대화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결은 큰 힘을 발휘한다. 양국 간에 대화가 있다면, 그 대화를 통해 양국의 차이를 좁힐 수 있다. 양국이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합의할 수 있다면 한국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는 그냥 이뤄지지 않는다.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하마네 우스만 전 니제르 대통령이 1월18일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2018 아프리카 서밋’ 현장에서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다.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대화로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매듭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석 기자

“남한과 북한, 대화 통해 차이 좁힐 수 있을 것”

그런 면에서 볼 때 UPF가 이번에 큰 역할을 했다고 그는 평가했다. 그는 “그 동안 UPF는 아프리카에서 여러 차례 서밋을 개최했다. 내 조국인 니제르에서도 이런 행사가 열렸다”면서 “하지만 올해 같이 초국가·초종교 행사는 처음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아프리카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UPF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또한 향후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각 대륙에서 월드 서밋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2020년은 문선명 총재 탄신 100주년, 한학자 총재 탄신 77주년인 해다. 가정연합은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일을 전후로 2주 동안 30여개의 기념행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안호열 가정연합 대외협력본부장은 “창시자의 가르침에 따라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한다. 이번 아프리카 서밋 개최를 계기로 좌절과 고통 속에 소외 받는 이웃들을 향한 종교인의 시대적 소명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조 한류’ 리틀엔젤스, 아프리카를 녹이다

1월 18~19일 세네갈서 열린 ‘2018 아프리카 서밋’ 초청 공연…마키 살 대통령 “감동 받았다”

세네갈 현지시간으로 1월16일 오후 5시, 수도인 다카르국제공항 출국장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파란 원피스에 태극기를 꽂은 하얀색 술을 걸치고, 빨간 가방과 오자를 쓴 소녀들 수십 명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1월 18일~19일 UPF(친구평화연합)와 세네갈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2018 아프리카 서밋’의 축하공연을 위해 방문한 리틀엔젤스 예술단이었다.

리틀엔젤스는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예술과 평화애호 정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62년 창설된 한국 전통 어린이 예술단이다. 전쟁과 빈곤, 고아라는 대명사로 알려진 잘못된 이미지를 씻기 위해 출범했다. 현재까지 전 세계 60여 개국, 6000여 회 이상의 공연을 국내외에서 가졌다.



1월18일 세네갈 수도인 다카르 소재 압두 디우푸 국제센터(CICAD)에서 열린 ‘2018 아프리카 서밋’ 개막식 리틀엔젤스 예술단이 축하 공연을 하고 있다. © 이석 기자

우리에게 익숙한 탭댄스 황정음과 박한별도 이 리틀엔젤스 출신이다. 리틀엔젤스 초대 멤버로 현재 예술단의 무용을 지도하고 있는 이경숙씨는 “해외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면 오래 된의대에 초청 받아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함께하곤 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전쟁과 빈곤 이미지 불식시키기 위해 1962년 출범

이곳 세네갈에서도 리틀엔젤스 예술단의 인기는 대단했다. 웅장한 한류 스타는 저리기라 할 정도였다. 출국장 입구에는 예술단 입국을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예술단원 32명은 출국장에서 나오자마자 한자리에 모였다. 이국인 소녀들을 신비한 듯 바라보는 인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잠시 후 유정식 지휘자의 지휘 아래 ‘Dibi Dibi Rek’과 ‘Sunu Societe’ 등 두 곡의 현지 노래를 즉석에서 불렀다. ‘아프리카의 화합’을 뜻하는 노래로 리틀엔젤스가 아프리카 공연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곡이었다. 유정식 지휘자는 “아프리카 서밋 자체가 화합을 위한 행사다. 현지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곡을 선택했다”며 “과거 식민지 시절 원혼 생활을 극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술단원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휴대용 카메라에 담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다. 이곳에서 만난 한 세네갈 여성은 “많이 들어 익숙한 노래인데, 동양의 어린 소녀가 함께 부르니 느낌이 새로웠다”며 “페이스북에 동영상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많은 친구들은 공유를 했다”고 말했다.



1월16일 리틀엔젤스 예술단은 세네갈 수도인 다카르국제공항 압두 디우푸 출국장 주변에 현지인들로부터 큰 반응을 받았다. © 이석 기자

실제로 리틀엔젤스는 서울에서 세네갈로 이동하는 내내 주목을 받았다. 인천공항에서 세네갈 다카르공항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비행기로 약 30시간 정도다. 홍콩 직항국제공항을 거쳐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공항과 토고 로메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한다. 환송을 할 때마다 리틀엔젤스는 주변 여행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돌아가면서 같이 사진을 찍자는 요청이 쇄도했다.

1월18일 세네갈 수도인 다카르 소재 압두 디우푸 국제센터(CICAD)에서 열린 ‘2018 아프리카 서밋’ 현장에서 리틀엔젤스는 주목을 받았다. 리틀엔젤스는 오전 10시 개최식 선연을 앞두고 무대에 입장했다. 한복을 공개 차려입고 단상에 마련된 세네갈 대통령 자리 바로 오른 쪽에 일시정면하게 자리 잡았다.



행사가 시작되자 세네갈 국가와 함께 ‘Dibi Dibi Rek’ 등을 불렀고, 참석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누구도 예외는 없었다. 이날 서밋에는 아프리카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부요인, 종교지도자, 족장 등 1200여 명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참석했는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리틀엔젤스를 응원했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평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무엇보다 리틀엔젤스의 아름다운 공연에 감동 받았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공항서 환송할 때마다 여행객 눈길 사로잡아

리틀엔젤스는 오후 7시 CICAD 대강당에서 축하공연을 가졌다. 장구춤과 북춤, 부채춤, 처녀총각, 시집가는 날, 아리랑 등 우리나라 전통춤과 노래가 선보일 때마다 관객들은 탄성을 질렀다. 인구 10만의 섬나라인 세이셸에서 왔다는 한 여성 지도자는 “이번 행사에 참석하고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한국 전통무용을 보고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 리틀엔젤스가 ‘홍보 대사’ 역할을 독특히 하고 있었다. 정임순 리틀엔젤스 단장은 “리틀엔젤스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기존 아이돌그룹과 다르다”며 “한국에 익숙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한국의 혼을 심는 한류 전도사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통 문화 알리는 ‘한류 전도사’

일레로 6·25 전쟁 60주년 되던 해인 2010년 리틀엔젤스는 미국을 포함, UN22개국 순회공연을 떠났다. 이 자리에는 6·25 전쟁 참전용사들도 초청됐다. 당시 참석자들은 “리틀엔젤스 공연을 보고 나를 포함한 동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참전 당시만 해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초청 공연까지 받아 보온 행사를 펼치니 감회가 새롭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10대 소녀들이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초1 때 리틀엔젤스에 입단해 올해로 9년째인 문지윤양(16)은 “힘들지만 전 세계를 다니며 공연을 할 때마다 환대를 받았다”며 “올해도 세네갈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다는 점에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천주평화연합 '아프리카 서밋'·조세이 탄광 희생자 위령제



천주평화연합 '2018 아프리카 서밋'
[천주평화연합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의 민간 국제기구인 천주평화연합은 18일부터 미들간 세네갈 다카르 압두 디우푸 국제센터(CICAD)에서 '2018 아프리카 서밋'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아프리카: 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라는 주제로 18일 열린 개막식에는 한학자 가정연합 총재와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대통령과 수상 등 아프리카 60여개국에서 총 1천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아프리카 대륙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과 아프리카 대륙 세계평화종교인연합 등을 출범시키고 평화에 대한 결의를 담은 '다카르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대한불교관음종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조세이 해저 탄광에 강제 징용됐다가 붕괴사고로 숨진 조선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제를 오는 20일 일본 무베시 조세이탄광 추모광장에서 봉행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위령제에는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 관음종 관계자들과 희생자 유가족, 일본 불교계 인사 등이 참석한다.

'아프리카 서밋', 세네갈 다카르에서 개최...평화선언 발표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아프리카 서밋'에서 연설중인 한학자 총재(사진제공=가정연합)

【서울=뉴스시스】박영환 기자 = 천주평화연합이 '2018 아프리카 서밋'을 세네갈의 수도인 다카르 소재 압두 디우푸 국제센터(CICAD)에서 18~19일 개최했다.

'신아프리카: 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서밋에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와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을 비롯해 60여 개국에서 온 1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한 총재의 기조연설, 참가국 대통령 연설, 분과별 모임, 리틀엔젤스예술단 문화공연, 아프리카 대륙 의원연합(IAPP)-종교인연합(IAPD)-세계평화족장연합(ICAPP) 창립, 다카르 평화선언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에서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 유럽, 유라시아, 아시아를 지나 한국으로 통하는 평화고속도로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또 "아프리카를 하나님이 창조한 건강한 아프리카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한편, 천주평화연합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 참가한 종교지도자와 종단대표들은 노예무역의 중계지로 악명 높던 고레 섬을 찾아가 해방해원식을 거행했다고 가정연합측은 전했다.

천주평화연합은 2005년 9월 문선명·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뉴욕에서 창설한 시민사회단체로 유엔 경제이사회(ECOSOC) 특별자문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세계 154개국에 평화대사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제적 단체라고 가정연합측은 설명했다.

세네갈 다카르서 '아프리카 서밋' 개최

천주평화연합, 神아프리카 주제로
세네갈 대통령 등 1천200명 참석



천주평화연합은 18~19일까지 서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에 위치한 압두 디우푸 국제센터(CICAD)에서 '2018 아프리카 서밋(Africa Summit)'을 개최했다.

천주평화연합(Universal Peace Federation)은 지난 18~19일까지 '2018 아프리카 서밋(Africa Summit)'을 서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에 위치한 압두 디우푸 국제센터(CICAD)에서 '신아프리카: 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2018 아프리카 서밋'은 한학자 총재와 마키 살(Macky Sall) 세네갈 대통령을 비롯한 현직 대통령 및 대통령 대행 20명, 전직 대통령 및 수상 11명, 현직 장관 35명,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17명, 국회의원 295명 종교지도자 88명, 학자 110명, 여성지도자, 비즈니스 리더, 언론관계자, 청년지도자, 시민단체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며,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리비아, 말리, 수단, 알제리, 알골라, 에티오피아, 이집트,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콩고 민주공화국 등 60여 개국에서 총 1천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학자 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은 아프리카가 하나님을 모시는 신(神)아프리카로서 세계 앞에 드러날 수 있는 역사적이며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아프리카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하늘성리의 중심에 서서 새 역사를 출발하는 아프리카 대륙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 아프리카 서밋' 개최식은 이맘 세이크 야흐메드 티디안 시체(이슬람교)와 짐바브웨 사도기독교 연합회 회장인 요하네스 멘달가 대주교(기독교)의 초종교 기도로 시작했다. 이어 세이크 만수르 디우프(세네갈 이슬람 지도자) 2018 아프리카 서밋 운영위원장 환영사, 토머스 뫼스 UPF 세계의장 연설, 리틀엔젤스 예술단 특별공연(세네갈 전통민요), 디문룬다 트라오레 말리 전 대통령의 기조연설자 소개, 한학자 총재 기조연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리더십과 굿 거버넌스 어워드(Leadership and Good Governance Award)상 수상,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2018 아프리카 서밋'은 의원연합 창립의 토대 위해 개최됐다. 의원연합은 상생과 공영의 길을 추구하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영구적 평화의 세계 건설과 인류발전을 위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 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해 창립하게 됐다. 영토분쟁, 종교분쟁, 인종갈등, 환경훼손, 기후변화, 폭력적 극단주의, 빈곤과 기아, 인류의 존엄을 위협하는 핵 확산 등 평화세계 실현을 방해하고 인류발전에 큰 위협이 되는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와 평화를 위해 세계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연대와 협력을 이루는 국제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한편 천주평화연합(UPF)은 현재 유엔 경제이사회(ECOSOC) 특별자문기관으로 등록된 단체로 2005년 9월 12일 문선명·한학자 총재가 뉴욕에서 창설해서 세계 154개국에 UPF 평화대사들의 네트워크를 가지는 국제적인 NGO단체다. '참사람은 UPF의 이상과 철학'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분절을 해소하려고 정치, 종교, 학계, 언론, 예술, 스포츠 등의 지도자들을 연결시키는 소프트파워의 역할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이태원기자]

천주평화연합, '아프리카 서밋'서 평화선언



▲ '2018 아프리카 서밋'서 한학자 총재의 기조연설 모습/천주평화연합 제공

천주평화연합이 '2018 아프리카 서밋'을 세네갈의 수도인 다카르 소재 압두 디우푸 국제센터(CICAD)에서 18~19일 '신아프리카: 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2018 아프리카 서밋'은 UPF 창설자 한학자 총재와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대통령과 총리 등 아프리카 지역 60여 개국, 1200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한 총재의 기조연설, 참가국 대통령 연설, 분과별 모임, 리틀엔젤스예술단 문화공연, 아프리카 대륙 의원연합(IAPP)-종교인연합(IAPD)-세계평화족장연합(ICAPP) 창립, 다카르 평화선언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에서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 유럽, 유라시아, 아시아를 지나 한국으로 통하는 평화고속도로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또 "아프리카를 하나님이 창조한 건강한 아프리카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이어 마키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2018 아프리카 서밋 첫 개최를 세네갈에서 개최하게 돼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천주평화연합의 활동이 국민 간의 화합과 통일, 그리고 국민 간의 다양성 존중을 보게 될 때 세네갈은 휴머니즘 비전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정연합측은 천주평화연합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 참가한 종교지도자와 종단 대표들은 노예무역의 중계지로 악명 높던 고레 섬을 찾아가 해방해원식을 거행했다고 전했다.

천주평화연합은 지난 2005년 9월 문선명·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뉴욕에서 창설한 시민사회단체로 유엔 경제이사회(ECOSOC) 특별자문기관으로 등록돼 있으며 세계 154개국에 평화대사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제적 단체다.

천주평화연합, ‘2018 아프리카 서밋’ 개최

세네갈 대통령 등 60개국 1,200명 지도자 참석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 제안, 다카르 선언 발표



© 경안일보

천주평화연합(Universal Peace Federation)은 18일부터 19일까지 ‘2018 아프리카 서밋(Africa Summit)’을 서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에 위치한 압두 디우푸 국제센터(CICAD)에서 ‘신아프리카: 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라는 주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 아프리카 서밋’은 한학자 총재와 마키 살(Macky Sall) 세네갈 대통령을 비롯한 현직 대통령 및 대통령 대행 20명, 전직 대통령 및 수상 11명, 현직 장관 35명, 국회의장 및 국회의장 17명, 국회의원 295명 종교지도자 88명, 족장 110명, 여성지도자, 비즈니스 리더, 언론관계자, 청년지도자, 시민단체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며,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리비아, 말리, 수단,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이집트,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콩고 민주공화국 등 60여 개국에서 총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학자 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은 아프리카가 하나님을 모시는 신(神)아프리카로 서 세계 앞에 드러날 수 있는 역사적이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아프리카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하늘섭리의 중심에 서서 새 역사를 출발하는 아프리카 대륙이 돼야 한다”고 축복했다.

이어 한 총재는 “첫 번째 아프리카 서밋 개최지로 세네갈을 택한 이유는 하늘이 이 한 때를 위해 당신이 길러나 온 준비된 의인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에서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 유럽, 유라시아, 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통하는 평화고속도로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한 총재는 “오늘날 인간의 무지로 황폐해진 지구는 미래 인류에 희망이 될 수 없기에 아프리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건강한 아프리카로 만들자”며, “우리 다함께 손에 손 잡고 하나님 앞에 한 형제자매로서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실현하는 그날을 향해 총진군 하자”고 설파해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2018 아프리카 서밋’ 개최식은 이맘 세이크 아흐메드 티디안 시셰(이슬람교)와 짐바브웨 사도기독교연합회 회장인 요하네스 멘당가 대주교(기독교)의 초종교 기도로 시작했다. 이어 세이크 만수르 디우프(세네갈 이슬람 지도자) 2018 아프리카 서밋 운영위원장 환영사, 토머스 윌시 UPF 세계의장 연설, 리틀엔젤스 예술단 특별공연(세네갈 전통민요), 디온쿤다 트라오레 말리 전 대통령의 기조연설자 소개, 한학자 총재 기조연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리더십과 굿 거버넌스 어워드(Leadership and Good Governance Award)상 수상,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한학자 총재의 기조연설 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에게 굿 거버넌스 상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수상 후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2018 아프리카 서밋 첫 개최를 세네갈에서 개최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천주평화연합의 활동이 국민 간의 화합과 통일, 그리고 국민 간의 다양성 존중을 보게 될 때 세네갈은 휴머니즘 비전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2018 아프리카 서밋’ 세네갈 다카르에서 개최

현직 대통령, 수상, 국회의장 포함 60개국 1,200명 지도자 참석

(이진희 기자) 천주평화연합(Universal Peace Federation)은 오는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018 아프리카 서밋(Africa Summit)’을 서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에 위치한 압두 디우푸 국제센터(CICAD)에서 ‘신아프리카: 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라는 주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 아프리카 서밋’은 한학자 총재와 마키 살(Macky Sall) 세네갈 대통령을 비롯한 현직 대통령 및 대통령 대행 20명, 전직 대통령 및 수상 11명, 현직 장관 35명, 국회의장 및 국회의부의장 17명, 국회의원 295명 종교지도자 88명, 족장 110명, 여성지도자, 비즈니스 리더, 언론관계자, 청년지도자, 시민단체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며,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리비아, 말리, 수단,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이집트,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콩고 민주공화국 등 60여 개국에서 총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학자 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은 아프리카가 하나님을 모시는 신(神)아프리카로써 세계 앞에 드러날 수 있는 역사적이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아프리카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하늘섭리의 중심에 서서 새 역사를 출발하는 아프리카 대륙이 돼야 한다”고 축복했다. 이어 한 총재는 “첫 번째 아프리카 서밋 개최지로 세네갈을 택한 이유는 하늘이 이 한 때를 위해 당신이 길러나 온 준비된 의인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에서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 유럽, 유라시아, 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통하는 평화고속도로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2018 아프리카 서밋’ 개최식은 이맘 세이크 아흐메드 티디안 시셰(이슬람교)와 짐바브웨 사도기독교연합회 회장인 요하네스 멘당가 대주교(기독교)의 초종교 기도로 시작했다. 한학자 총재의 기조연설 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에게 굿 거버넌스 상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수상 후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2018 아프리카 서밋 첫 개최를 세네갈에서 개최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천주평화연합의 활동이 국민 간의 화합과 통일, 그리고 국민 간의 다양성 존중을 보게 될 때 세네갈은 휴머니즘 비전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키 살 대통령은 “한학자 총재께서 아프리카까지 오셔서 수백년 동안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온 아프리카 대륙에 희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아프리카는 미래의 대륙이고 그 미래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조금 전 주신 굿 거버넌스 상금 10만불은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아원에 기부할 것이며, ‘2018 아프리카 서밋’ 주제가 ‘신아프리카: 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인데 저는 신아프리카를 믿으며, 번영하는 아프리카를 믿기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전쟁 종식만이 아니라 개발을 통해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 아프리카 서밋’은 이어 각국 대통령 연설, 특별발표(새마을운동’ 및 ‘커피농장이나니쉬어티브’ 소개, 국제평화고속도로 소개, ‘인성교육’ 및 ‘가정 가치’ 소개, 선학평화상 소개, 국제과학통일회의), 분과별 모임(각국 정상, 국회의원, 종교지도자, 족장, 여성지도자, 비즈니스 리더, 청년 지도자), 리틀엔젤스예술단 문화공연, 아프리카 대륙 의원연합(IAPP) 창립, 아프리카 대륙 종교인연합(IAPD) 창립, 아프리카 대륙 세계평화족장연합(ICAPP) 창립, 다카르 평화선언 발표, 폐회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 동쪽 3km 앞바다에 있고 이전에는 노예무역의 중계지로 악명이 높았던 고레 섬을 종교지도자 및 종단대표들이 찾아가 해양해원식을 거행해 의미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평화결의와 건의사항을 담아 ‘다카르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2018 아프리카 서밋’은 의원연합 창립의 토대 위해 개최됐다. 의원연합은 상생과 공영의 길을 추구하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영구적 평화의 세계 건설과 인류발전을 위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 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해 창립하게 됐다. 의원연합은 네팔에서 아시아-오세아니아권 창립대회를 2016년 7월 28~30일에 네팔 수상 및 166명 국회의원을 포함한 29개국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으며, 서-중-양 아프리카권 창립을 8월 8~10일에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에 위치한 부르키나파소 국회의사당에서 24개국 160명 국회의원을 포함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다. . 현재 각국에서 의원연합 창설을 각국 의원들과 협력해서 진행 중이며 올해 70개국에서 의원연합이 창설될 전망이다.

또한 종교인연합 창설결의대회는 2017년 11월 13일에 세계 70개국 20여개 종단대표지도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됐다. 창설결의대회에는 기독교, 유교, 불교, 이슬람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대교, 대종교, 대한천리교, 시크교, 영국국교회, 천도교, 신도 등 20여개 종단 종교지도자가 모여 창설결의문을 낭독, 서명했다. 참석한 종교지도자들은 11월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2017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에 참석해서 한반도 평화와 초종교-초국가적 화합을 위해 8만명 청중과 더불어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천주평화연합(UPF)은 현재 유엔 경제이사회(ECOSOC) 특별자문기관으로 등록된 단체로 2005년 9월 12일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뉴욕에서 창설해서 세계 154개국에 UPF 평화대사들의 네트워크를 가지는 국제적인 NGO단체다. ‘참사랑은 UPF의 이상과 철학’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분쟁을 해소하려고 정치, 종교, 학계, 언론, 예술, 스포츠 등의 지도자들을 연결시키는 소프트파워의 역할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어 마키 살 대통령은 “한학자 총재께서 아프리카까지 오셔서 수백년 동안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온 아프리카 대륙에 희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아프리카는 미래의 대륙이고 그 미래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조금 전 주신 굿 거버넌스 상금 10만 불은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아원에 기부할 것이며, ‘2018 아프리카 서밋’ 주제가 ‘신아프리카: 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인데 저는 신아프리카를 믿으며, 번영하는 아프리카를 믿기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전쟁 종식만이 아니라 개발을 통해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 아프리카 서밋’은 이어 각국 대통령 연설, 특별발표(‘새마을운동’ 및 ‘커피농장이나니쉬어티브’ 소개, 국제평화고속도로 소개, ‘인성교육’ 및 ‘가정 가치’ 소개, 선학평화상 소개, 국제과학통일회의), 분과별 모임(각국 정상, 국회의원, 종교지도자, 족장, 여성지도자, 비즈니스 리더, 청년 지도자), 리틀엔젤스예술단 문화공연, 아프리카 대륙 의원연합(IAPP) 창립, 아프리카 대륙 종교인연합(IAPD) 창립, 아프리카 대륙 세계평화족장연합(ICAPP) 창립, 다카르 평화선언 발표, 폐회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 동쪽 3km 앞바다에 있고 이전에는 노예무역의 중계지로 악명이 높았던 고레 섬을 종교지도자 및 종단대표들이 찾아가 해양해원식을 거행해 의미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평화결의와 건의사항을 담아 ‘다카르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2018 아프리카 서밋’은 의원연합 창립의 토대 위해 개최됐다. 의원연합은 상생과 공영의 길을 추구하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영구적 평화의 세계 건설과 인류발전을 위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 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해 창립하게 됐다. 영토분쟁, 종교분쟁, 인종갈등, 환경훼손, 기후변화, 폭력적 극단주의, 빈곤과 기아,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핵 확산 등 평화세계 실현을 방해하고 인류발전에 큰 위험이 되는 문제에 대항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와 평화를 위해 세계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연대와 협력을 이루는 국제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의원연합은 네팔에서 아시아-오세아니아권 창립대회를 2016년 7월 28~30일에 네팔 수상 및 166명 국회의원을 포함한 29개국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으며, 서-중-양 아프리카권 창립을 8월 8~10일에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에 위치한 부르키나파소 국회의사당에서 24개국 160명 국회의원을 포함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다.

이후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권 창립을 10월 6~8일 코스타리카 국회에서 20여 개국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으며, 남미권 창립식을 파라과이 국회에서 10여 개 국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0~12일까지 개최했다. 동아프리카권 창립을 짐바아 국회에서 11월 5~7일에 18개국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뒤 2016년 마지막 피날레를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내 상원 러셀 빌딩 케네디 코커스룸에서 미국 국회의원 및 56개국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2017년 2월 4일에는 의원연합 세계총회를 120개국 전현직 국회의원 포함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잠실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했다. 현재 각국에서 의원연합 창설을 각국 의원들과 협력해서 진행 중이며 올해 70개국에서 의원연합이 창설될 전망이다.

또한 종교인연합 창설결의대회는 2017년 11월 13일에 세계 70개국 20여 개 종단대표지도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됐다. 창설결의대회에는 기독교, 유교, 불교, 이슬람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대교, 대종교, 대한천리교, 시크교, 영국국교회, 천도교, 신도 등 20여 개 종단 종교지도자가 모여 창설결의문을 낭독, 서명했다.

참석한 종교지도자들은 11월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2017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에 참석해서 한반도 평화와 초종교-초국가적 화합을 위해 8만명 청중과 더불어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천주평화연합(UPF)은 현재 유엔 경제이사회(ECOSOC) 특별자문기관으로 등록된 단체로 2005년 9월 12일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뉴욕에서 창설해서 세계 154개국에 UPF 평화대사들의 네트워크를 가지는 국제적인 NGO단체다. ‘참사랑은 UPF의 이상과 철학’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분쟁을 해소하려고 정치, 종교, 학계, 언론, 예술, 스포츠 등의 지도자들을 연결시키는 소프트파워의 역할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칭타임즈

천주평화연합 '아프리카 서밋' 성료

아프리카 60여개국 지도자 참석

천주평화연합(Universal Peace Federation)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서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에 위치한 압두 디우푸 국제센터(CICAD)에서 '신아프리카 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라는 주제로 '2018 아프리카 서밋(Africa Summit)'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한학자 총재와 마키 살(Macky Sall) 대통령을 비롯한 현직 대통령 및 대통령 대행 20명, 전직 대통령 및 수상 11명, 현직 장관 35명, 종교지도자, 족장 등 세네갈 주요인사와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60여 개국에서 총 1200여명이 참석했다.

'2018 아프리카 서밋'은 의원연합 창립과 연계해 개최됐다. 의원연합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영구적 평화와 인류발전을 위해 세계 국회의원 조직으로 출범했다.

동양일보

천주평화연합 세네갈서 '아프리카 서밋' 개최

대통령수상·국회의장 등 60개국 1200명 참석



▲ 18일 세네갈 압두 디우푸 국제센터에서 '신아프리카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라는 주제로 열린 '2018 아프리카 서밋'에서 한학자 천주평화연합 총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민간 국제기구인 천주평화연합은 18~19일 이틀간 세네갈 다카르 압두 디우푸 국제센터(CICAD)에서 '2018 아프리카 서밋'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아프리카: 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라는 주제로 18일 열린 개막식에는 한학자 가정연합 총재와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대통령과 수상, 장관, 국회의장, 종교지도자 등 아프리카 60여개국 1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학자 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에서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 유럽, 유라시아, 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통하는 평화고속도로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아프리카 대륙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과 아프리카 대륙 세계평화종교인연합 등을 출범시키고 평화에 대한 결의를 담은 '다카르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천주평화연합, '2018 아프리카 서밋'세네갈서 성료

현직 대통령수상 등 60개국 1200명 지도자 참석
한학자 총재 "새역사 출발하는 아프리카 대륙돼야"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창립-'다카르 평화선언' 발표



천주평화연합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2018 아프리카 서밋(Africa Summit)'을 서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에 위치한 압두 디우푸 국제센터(CICAD)에서 '신아프리카: 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라는 주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 아프리카 서밋'은 한학자 총재와 마키 살(Macky Sall) 세네갈 대통령을 비롯한 현직 대통령 및 대통령 대행 20명, 전직 대통령 및 수상 11명, 현직 장관 35명,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17명, 국회의원 295명 종교지도자 88명, 족장 110명, 여성지도자, 비즈니스 리더, 언론관계자, 청년지도자, 시민단체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가나를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리비아, 말리, 수단,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이집트,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콩고 민주공화국 등 60여 개국에서 총 1,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학자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아프리카가 하나님을 모시는 신(神)아프리카로써 세계 앞에 드러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라면서 "아프리카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하늘섭리의 중심에 서서 새 역사를 출발하는 아프리카 대륙이 돼야 한다"고 축복했다.

이어 한 총재는 "오늘날 인간의 무지로 황폐해진 지구는 미래 인류에 희망이 될 수 없기에 아프리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건강한 아프리카로 만들자"며 "다 함께 손에 손 잡고 하나님 앞에 한 형제자매로서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실현하는 그날을 향해 종진군 하자"고 설파해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2018 아프리카 서밋' 개회식은 이맘 세이크 아흐메드 티디안 시세(이슬람교)와 짐바브웨 사도기독교연합회 회장인 요하네스 엔당가 대주교(기독교)의 초종교 기도로 시작했다.

이어 세이크 만수르 디우프(세네갈 이슬람 지도자) 2018 아프리카 서밋 운영위원장 환영사, 토머스 웰시 UPF 세계의장 연설, 리틀엔젤스 예술단 특별공연(세네갈 전통민요), 디온쿤다 트라오레 말리 전 대통령의 기조연설자 소개, 한학자 총재 기조연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리더십과 굿 거버넌스 어워드(Leadership and Good Governance Award) 상 수상,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2018 아프리카 서밋'은 이어 각국 대통령 연설, 특별발표('새마을운동' 및 '커피농장이니쉬어티브' 소개, 국제평화고속도로 소개, '인성교육' 및 '가정 가치' 소개, 선학평화상 소개, 국제과학통일회의), 분과별 모임, 리틀엔젤스예술단 문화공연, 아프리카 대륙 의원연합(IAPP) 창립, 아프리카 대륙 종교인연합(APD) 창립, 아프리카 대륙 세계평화족장연합(ICAPP) 창립, 다카르 평화선언 발표, 폐회식 등이 진행됐다.

한편 천주평화연합(UPF)은 현재 유엔 경제이사회(ECOSOC) 특별자문기관으로 등록된 단체로 2005년 9월 12일 문선명-한학자 총재가 뉴욕에서 창설해서 세계 154개국에 UPF 평화대사들의 네트워크를 가지는 국제적인 NGO단체다. '참사랑'은 UPF의 이상과 철학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분쟁을 해소하려고 정치, 종교, 학계, 언론, 예술, 스포츠 등의 지도자들을 연결시키는 소프트파워의 역할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 '아프리카 서밋' 세네갈 다카르서 개최

현직 대통령, 수상, 국회의장 포함 60개국 1,200명 지도자 참석



천주평화연합(Universal Peace Federation)은 18일부터 19일까지 서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에 위치한 압두 디우푸 국제센터(CICAD)에서 '2018 아프리카 서밋(Africa Summit)'을 개최했다.<사진=천주평화연합 >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천주평화연합(Universal Peace Federation)은 18일부터 19일까지 서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에 위치한 압두 디우푸 국제센터(CICAD)에서 '2018 아프리카 서밋(Africa Summit)'을 개최했다.

'2018 아프리카 서밋'은 한학자 총재와 마키 살(Macky Sall) 세네갈 대통령을 비롯한 현직 대통령 및 대통령 대행 20명, 전직 대통령 및 수상 11명, 현직 장관 35명,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17명, 국회의원 295명 종교지도자 88명, 족장 110명, 여성지도자, 비즈니스 리더, 언론관계자, 청년지도자, 시민단체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며,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리비아, 말리, 수단,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이집트,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콩고 민주공화국 등 60여 개국에서 총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학자 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은 아프리카가 하나님을 모시는 신(神)아프리카로써 세계 앞에 드러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아프리카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하늘섭리의 중심에 서서 새 역사를 출발하는 아프리카 대륙이 돼야 한다"고 축하했다.

이어 "첫 번째 아프리카 서밋 개최지로 세네갈을 택한 이유는 하늘이 이 한 때를 위해 당신이 길러온 준비된 의인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에서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 유럽, 유라시아, 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통하는 평화고속도로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한 총재는 "오늘날 인간의 무지로 황폐해진 지구는 미래 인류에 희망이 될 수 없기에 아프리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건강한 아프리카로 만들자"며, "우리 다 함께 손에 손 잡고 하나님 앞에 한 형제자매로서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실현하는 그날을 향해 종진군 하자"고 설파해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2018 아프리카 서밋'은 이어 각국 대통령 연설, 특별발표('새마을운동' 및 '커피농장이니쉬어티브' 소개, 국제평화고속도로 소개, '인성교육' 및 '가정 가치' 소개, 선학평화상 소개, 국제과학통일회의), 분과별 모임(각국 정상, 국회의원, 종교지도자, 족장, 여성지도자, 비즈니스 리더, 청년 지도자), 리틀엔젤스예술단 문화공연, 아프리카 대륙 의원연합(IAPP) 창립, 아프리카 대륙 종교인연합(APD) 창립, 아프리카 대륙 세계평화족장연합(ICAPP) 창립, 다카르 평화선언 발표, 폐회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 동쪽 3km 앞바다에 있고 이전에는 노예무역의 중계지로 악명이 높았던 고레 섬을 종교지도자 및 종단대표들이 찾아가 해양 해원식을 거행해 의미가 있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평화결의와 건의사항을 담아 '다카르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한학자 총재 “아프리카서 한국까지 평화고속도로 건설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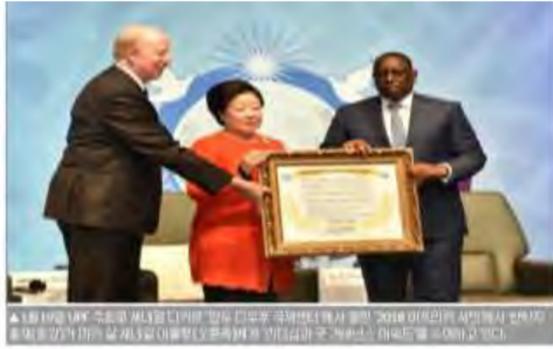
UPF '2018 아프리카 서밋' 개최... 60여개국 지도자 1200여명 참석... '다카르 선언' 발표

글로벌 NGO(비영리기구) 천주평화연합(UPF: 공동창설자 문선명 한학자 총재)은 1월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시아프리카 세네갈 수도 다카르의 '압두 디우프 국제센터'에서 '2018 아프리카 서밋(Africa Summit 2018)'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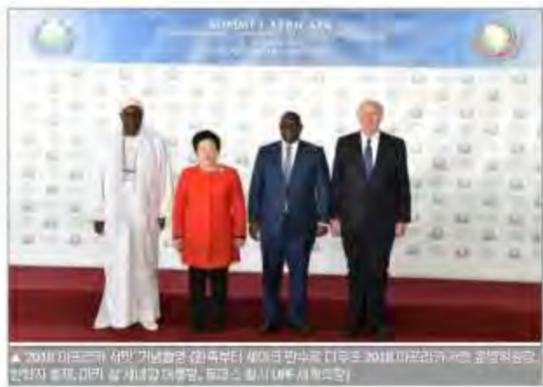
'신(神)아프리카: 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라는 주제로 열린 개막식에는 한학자 총재와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을 비롯해 전 현직 대통령과 총리 등 아프리카 지역 60여개국에서 1200여명의 각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 18일 19일 천주평화연합(UPF) 주최로 세네갈 다카르 '압두 디우프 국제센터'에서 열린 '2018 아프리카 서밋' 개막식에서 UPF 공동창설자 한학자 총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한 총재는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 대륙은 20여개의 역사를 두고 세계평화를 위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18일 19일 UPF 주최로 세네갈 다카르 '압두 디우프 국제센터'에서 열린 '2018 아프리카 서밋' 개막식에서 한학자 총재가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에게 '리더십과 거버넌스 어워드'를 수여하고 있다.



▲ 2018 아프리카 서밋 기념공연은 '인종차별 반대'를 주제로 다카르 2018 아프리카 서밋 공동창설자 한학자 총재,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토머스 뮌시(미국 서부지역)

마키 살 대통령은 "한학자 총재께서 아프리카까지 오셔서 수백년 동안 아픔과 어려움을 겪은 아프리카 대륙에 희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아프리카는 미래의 대륙이고 그 미래가 곧 오늘날 시작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그는 "조금 전에 주신 '거버넌스 상급'만 달리는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아원에 기부할 것이다. '2018 아프리카 서밋' 주제 '신아프리카: 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인데 저는 신아프리카를 믿으며, 변형하는 아프리카를 믿기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진실 증언이 아니라 개발을 통해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 아프리카 서밋'은 세계평화회의원연합(IAPP) 창립의 토대 위해 개최됐다. IAPP는 신생과 공영의 길을 추구하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영구적 평화의 세계 건설과 인류발전을 위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 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해 참칭하게 됐다. 영도분경, 종교분경, 인종갈등, 환경훼손, 기후변화, 폭력적 극단주의, 빈곤과 기아, 인권의 존엄을 위협하는 핵 확산 등 평화세계 실현을 방해하고 인류발전에 큰 위협이 되는 문제에 대항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와 평화를 위해 세계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연대와 협력의 이우를 국제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IAPP는 네덜란드에서 아시아-오세아니아권 창립대회를 2016년 7월28-30일에 네덜란드 및 16개국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29개국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으며, 서 중앙 아프리카권(중) 창립을 8월 8-10일에 부르키나소 인가두구에 위치한 부르키나소 국회의사당에서 24개국 160명 국회의원을 포함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다. 이후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권 창립을 2016년 10월8-8일 코스타리카 국회의사 200여명,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으며, 남미권 창립식을 파라과이 국회에서 100여명 국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10-12일까지 개최했다.

IAPP는 또 짐바웨 국회에서 2016년 11월5-7일 18개국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뒤 2016년 마지막 파란레슬 미국 워싱턴D.C. 연방의사당 대 살럼 리볼빌 캐나다 포커스룸에서 미국 국회의원 및 56개국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2017년 2월4일에는 IAPP 세계총회를 120개국 전 현직 국회의원 포함,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했다. 현재 각국에서 IAPP 창설을 각국 국회의원과 협력해서 진행 중이다 2018년에 70개국에서 IAPP가 창설을 예정이다.



▲ 세네갈 전통의상을 부르는 리듬발레소. 2018년 1월12일 공연의 특별공연

UPF는 유엔경제이사회 특별지문기관으로, 2005년 9월12일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미국 뉴욕에서 창설한 순수 민간 국제평화운동 기구다. 현재 154개국에 평화대사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국제고속도로 건설과 지구촌 기아추방 등 다양한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 총재 "아프리카, 아픈 과거 딛고 평화의 대륙으로 거듭나야"

한학자 총재는 창설자 기조연설에서 "오늘은 아프리카가 하나님을 모시는 신(神)아프리카로서 세계 앞에 드러날 수 있는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자리"라며 "아프리카의 아픈 과거를 접산하고 하늘 섭리의 중심에 서서 새 역사를 출발하는 아프리카 대륙이 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 18일 19일 천주평화연합(UPF) 주최로 세네갈 다카르 '압두 디우프 국제센터'에서 열린 '2018 아프리카 서밋' 개막식에서 한학자 총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8 아프리카 서밋' 개최식은 이말 케이프 아프리카 리디안 사제(이슬람교)와 짐바웨 도기독교연합회 회장인 요하네스 엔딩가 대주교(가톨릭)와 총총교 지도로 시작했다. 0 각국 대통령 연설, 특별발표(세메물론과 '커피농장 이니셔티브' 소개, 국제평화고속도로 소개, '인성교육' 및 '기적 가치' 소개, 선택평화상 소개, 국제과학평화위원회), 분과별 5(각국 창설, 국회의원, 종교지도자, 폭력, 여성지도자, 비즈니스 리더, 청년 지도자), 리듬 발레공연 문화공연, 아프리카 대륙 의평연합(IAPP) 창립, 아프리카 대륙 종교인연합(IAD) 창립, 아프리카 대륙 세계평화회의원연합(ICAPP) 창립, 다카르 평화선언 발표, 폐회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짐바웨 사도기독교연합회 회장인 요하네스 엔딩가 대주교 등의 총총교 지도로 시작했다. 이어 이슬람 지도자인 셰이크 만수르 디우프 '2018 아프리카 서밋' 운영위원 환영사, 토머스 뮌시 UPF의장 연설, 리듬발레공연 특별공연, 한 총재 기조연설, 마키 살 대통령 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날에는 아프리카대륙의회원연합(IAPP), 아프리카대륙종교인연합(IAPD), 아프리카대륙세계평화회의원연합(ICAPP) 창립식이 열렸다. 특히, 행사 중 종교지도자 및 총인대표 이 다카르 인근 고레(Goree)섬을 방문해 개발 해원식을 거행했다. 고레섬은 15-19세기 아프리카 연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예무역 중심지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에 이어 지배받은 곳이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평화결의와 건의사항을 담아 '다카르 평화선'을 발표했다.



▲ 18일 19일 천주평화연합(UPF) 주최로 세네갈 다카르 '압두 디우프 국제센터'에서 열린 '2018 아프리카 서밋' 개막식에서 한학자 총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같이여 등단한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2018 아프리카 서밋 첫 개최를 세네갈에서 개최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천주평화연합의 활동이 국민 간의 화합과 조화, 그리고 국민 간의 다양성 존중을 보게 될 때 세네갈은 흑아니를 변신에 돌의 천다"고 강조했다.



19일 천주평화연합(UPF) 주최로 세네갈 다카르 '압두 디우프 국제센터'에서 열린 '2018 아프리카 서밋'에서 UPF 창설자 한학자 총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한 총재는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 대륙은 아픈 과거의 역사를 딛고 세계평화를 위해 도전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UPF 제공

"아픈 과거 딛고 평화의 대륙으로 거듭나야"

UPF, 세네갈서 '2018 아프리카 서밋' 개최

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gye.com

천주평화연합(UPF)은 18일부터 이틀간 세네갈 수도 다카르의 '압두 디우프 국제센터'에서 '2018 아프리카 서밋'을 개최했다. '신아프리카: 공생·공영·공의와 보편적 가치'라는 주제로 열린 개막식에는 UPF 창설자 한학자 총재와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대통령과 총리 등 아프리카 지역 50여개국에서 1200여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각국 지도자들은 아프리카대륙 세계평화회의원연합과 아프리카대륙 세계평화종교인연합 등을 출범시키고, 평화 수호에 대한 결의를 담은 '다카르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한 총재는 창설자 기조연설에서 "오늘은 아프리카가 하나님을 모시는 신(神)아프리카로서 세계 앞에 드러날 수 있는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자리"라며 "아프리카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하늘 섭리의 중심에 서서 새 역사를 출발하는 아프리카 대륙이 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재는 또 "아프리카 서밋 개최지로 세네갈을 선택한 이유는 하늘이 준비해온 장소이기 때문"이라며 "세네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건강한 아프리카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한 총재는 이어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 유럽, 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통하는 평화고속도로를 건설하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비롯해 50여개국 지도자 1200명 참석 평화 수호 '다카르 선언' 발표 한학자 총재 "하늘섭리의 중심서 건강한아프리카 새 역사 출발을" 희망봉-한국 평화고속도로 제안도

자"고 제안했다. 한 총재가 연설을 마치고 각국 대표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고, 연설 도중에도 수차례 박수로 동의를 표시했다.

이어 등단한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한 총재께서 아프리카까지 오셔서 수백년 동안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온 아프리카 대륙에 희망의 말씀을 주셨다. 이제 아프리카는 미래의 대륙이고 그 미래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마키 살 대통령은 이어 "한 총재가 기부하신 굿 거버넌스 상급 10만달러는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아원에 기부하고, 개발을 통해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짐바웨 사도기독교연합회 회장인 요하네스 엔딩가 대주교 등의 초총교 지도로 시작했다. 이어 이슬람 지도자인 셰이크 만수르 디우프 '2018 아프리카 서밋' 운영위원장 환영사, 토머스 뮌시 UPF의장 연설, 리들



19일 열린 '2018 아프리카 서밋'에서 한학자 총재(가운데)가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오른쪽)에게 '리더십과 거버넌스 어워드'를 수여하고 있다. UPF 제공

엔젤스 예술단 특별공연, 한 총재 기조연설, 마키 살 대통령 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또 스각국 지도자 연설 '세메물론' 및 '커피농장 이니셔티브', 국제평화고속도로, 선택평화상 소개 등 특별발표 스각국 정상과 국회의원, 종교지도자, 족장, 여성지도자 등이 참석한 분과별 모임이 이어졌다. 마지막 날에는 아프리카 대륙의회원연합(IAPP), 아프리카대륙종교인연합(IAPD), 아프리카대륙세계평화총장연합(ICAPP) 창립식 등이 열렸다. 특히 행사중 종교지도자 및 총인대표들이 다카르 인근 고레(Goree)섬을 방문해 해방해원식을 거행했다. 고레섬은 15-19세기에 아프리카 연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예무역 중심지로 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프랑스에 연이어 지배받은 곳이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평화결의와 건의사항을 담아 '다카르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UPF는 유엔경제이사회 특별지문기관으로, 2005년 9월12일 문선명·한학자 총재가 뉴욕에서 창설한 순수 민간 국제평화운동 기구다. 154개국에 평화대사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국제고속도로 건설과 지구촌 기아추방 등 다양한 평화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세네갈 고레섬을 방문한 한학자 가정연합 총재가 “인류 조상이 태어나고 축복의 땅이었던 아프리카 대륙이 인류 평화와 미래 행복을 위해 거듭날 것”을 기원하고 있다. (왼쪽) 한 총재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뒤 오귀스탱 생고르 고레섬 시장 부부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고 있다. 가정연합제공

가정연합, 세네갈 고레섬 해원식 의미는

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최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이 개최한 ‘고레섬’ 행사가 종교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고레(Gorée)섬은 세네갈 수도 다카르 동쪽 3km 앞바다에 위치한 길이 900m, 폭 300m가량의 작은 섬이다. 수백년 전 노예무역의 중계지였던 이 섬 안에는 역사박물관 등 노예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남아 있다. 가정연합은 인류 비극의 역사를 안고 있는 이 노예의 섬에서 특별한 종교적 의식을 가졌다.

30일 가정연합에 따르면 한학자 총재는 노예선 출항지로 유명한 이 섬을 지난 19일 종교지도자로서선 처음 방문했다. 한 총재는 노예로 팔려가다 사망했거나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사후의 명복을 기원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기독교계 한 목회자는 “이교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연합 한 총재가 이슬람 신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곳에서 종파를 초월한 인류 화합을 선언한 것은 종교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총재는 당시 세네갈 정부가 마련한 배로 다카르항에서 20여 분 거리에 있는 고레섬에 이르렀다. 한 총재는 2시간여 동안 섬에



머물면서 기도와 메시지, 종교적 의식을 진행하면서 수백년 전 희생된 사람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 종교 의식을 가정연합은 ‘해원식(解冤式)’이라고 불렀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 섬의 행정책임자인 오귀스탱 생고르(Augustin Senghor) 시장 부부는 한 총재에게 명예시민증을 전달하며 감격했다.

세네갈 정부 인사와 수행원 등 200여명을 대동한 한 총재는 아직도 남아 있는 노예 섬의 흔적을 둘러본 뒤 메시지를 전했다.

한 총재는 “인류가 신의 이름으로 저지른 가장 가혹했던 역사를 갖고 있다. 피부색이 다른 이교도라는 이유로 과거 300여 년에 걸쳐 2000만명의 원주민이 노예로 끌려갔고 600만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다”면서 “더 이상의 갈등과 고통과 전쟁이 없는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0여년 걸쳐 600만명의 노예 희생 인류가 저지른 가장 가혹했던 역사 더이상 갈등·고통없는 평화섬 기원”

세계적 종교 지도자로는 처음 방문 응급환자 등 긴급상황 대비 배 기증 생고르 시장, 한 총재에 명예시민증

이어 “하늘을 중심 삼고 완전히 하나된 화합과 통일의 세계를 완성하는 평화의 섬이 될 것을 기원하며, 가정연합이 앞장서 이끌 것”이라고 했다. 한 총재는 응급환자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 한 척을 기증했다. 이 섬은 넬슨 만델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이 방문했던 곳이지만, 아직 변변한 의료시설조차 없다.

본격적인 노예선의 역사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619년 23명의 흑인이 네덜란드의 해적선에 실려 미국 버지니아주 제임스 타운에 도착한 이래, 노예무역이 금지된 1807년까지 150여만명의 원주민이 고레섬을 거쳐 미국으로 팔려갔다고 한다. 백인들이 일일이 찾아내서 납치한 게 아니었다. 현재의 족장이나 왕이 다른 부족을 습격해 잡아다놓고 백인 노예매매상들이 오면 금 등을

받고 팔았다고 한다. 노예선에 실릴 때 그들은 마치 화물처럼 배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포개졌다. 이들은 때때로 선상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대부분은 진압됐다. 백인들은 반란 주모자 영덩이의 껍질을 벗겨낸 뒤 영덩이를 피범벅으로 만들었다. 벗겨낸 영덩이에 화약, 레몬즙, 소금물, 고춧가루와 다른 약을 함께 넣고 문질러 고통을 배가시켰다고 한다.

이 끔찍한 교역을 주도했던 유럽의 노예상인들은 그들을 문명사회로 이끌어 구제한다고 떠들었다. 노예들은 이동 중 10명 중 한 명 꼴로 사망했다. 이 같은 죄악은 제국주의, 중상주의 때문에 벗어났다. 이후 4세기에 걸쳐 2000여만명의 사람들이 짐짝처럼 포개져 대서양을 건너 팔려나간 것이다.

한 총재의 고레섬 행사는 이슬람 지도자인 셰이크 만수르 디우프(Cheikh Mansour Diouf)와 조지 오거스터스 스톨링스 대주교의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 디우프는 700만명에 이르는 세네갈 이슬람 신도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저명 인사다.

한 총재를 안내했던 이슬람 지도자들은 “아프리카는 약탈과 고난, 멸시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아시아의 동쪽 끝 대한민국에서 온 한 총재의 초종교, 초교파적 행보는 분명 아프리카에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온다”고 평가했다.

Media Conference

중앙일보

통일교 내달 국제지도자회의 “전 세계, 한반도 평화 논의”

“전 세계 70개국에서 오는 전·현직 국회의원 450여 명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콘퍼런스를 연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이기성(64·사진) 신임 한국회장은 30일 신년간담회를 갖고 다음 달 18일부터 나흘간 ‘국제지도자회의(ILC)’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에서 오는 정치·종교·학술·언론·경제·사회·NGO 지도자 등이 참석해 세계 난문제 해결과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 각국 국회의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다음 달 24일에는 ‘효정세계평화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마련한다. 총 74개국 2444명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이 한국회장은 “이 밖에도 다문화가정 자녀 300여 명과 탈북민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2013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200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 약 100억원의 장학금을 집행하고 있다.

백성호 기자 vangogh@joongang.co.kr

東亞日報

이기성 통일교 신임 한국 회장 “평화세계 실현 위한 참가정운동 동 힘쓸 것”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다음달 18일부터 28일까지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생일과 기원절을 기점으로 다양한 행사를 연다.

이기성 신임 한국 회장(사진)은 30일 간담회에서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참가정운동과 속복운동에 힘쓰고, 참사랑의 실천으로 좌절과 고통 속에 소외 받은 이웃들을 향한 종교인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행사로 △문선명·한학자 총재 생일 기념식(2월21일) △기원절 5주년 기념식(2월28일) △국제지도자회의(2월18일~21일) △세계국회의원연합 국제컨퍼런스(2월19일) △효정세계평화재단 장학증서 수여식(2월24일) △문선명·한학자 총재 생애 업적 전시회(2월20일~28일)가 이어진다.

국제지도자 회의에는 세계 70개국에서 국회의원 4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비전과 역할’을 주제로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 회장은 최근 한 총재의 세네갈 방문 성과를 소개하면서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 활동에도 힘쓰겠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남미 지역 등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문화일보

70개 나라 국회의원 450명 ‘한반도 평화’ 논의

“내달 70개국 국회의원 450명 서울서 평화 논의”

평화통일가정연합 이기성 한국회장 회견
새달 18일부터 서울서 ‘국제지도자회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기성 한국회장.

이기성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회장

■ 이기성(사진) 신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회장은 “다음 달 세계 70개국 국회의원 450여 명이 참석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콘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가정연합은 기원절 5주년 기념식(2월 28일)을 비롯한 30여 개의 행사를 내달 2주간 집중적으로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달 18~21일에는 정치·종교·학술 등 각 분야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평화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지도자회의’가 열린다.

특히 내달 19일 세계 70개국 국회의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정착을 모색하는 콘퍼런스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가정연합은 또 내달 24일에는 국내외 74개국 장학생 약 2500 명에게 총 100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연다. 이 회장은 올해 아프리카를 전략 선교지로 삼아 해외 선교와 해외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가정연합은 지난달 세네갈에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연 데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남미에서 각각 10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회를 열 예정이다. 일본과 오스트리아 빈에서도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회장은 “남아공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개최하는 대회에 한학자 총재가 초청을 받아 행사를 준비 중이며, 이와 별도로 넬슨 만델라의 손녀로부터도 초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엄주엽 선임기자 ejyeob@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이기성 신임 한국회장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년회견을 열고 새달 18일부터 나흘간 ‘국제지도자회의(ILC)’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세계 70개 나라 국회의원 450명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비전과 역할’을 주제로 열린다.

또 다음달 24일에는 ‘효정세계평화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열어 74개 나라 2444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이 한국회장은 “다문화가정 자녀 300여 명과 탈북민 자녀들과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펼친 사람들에게도 장학금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정연합, 기원절 맞아 국제지도자회의 등 기념행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은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생일과 기원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내달 18일부터 잇달아 연다.

이기성 가정연합 한국회장은 30(IAPD)과 공동으로 2주 동안 국제지도자회의(ILC)를 비롯한 30여 개의 기념행사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행사는 2월21일로 생일이 같은 문선명(1920~2012)·한학자 총재 탄신 기념행사와 생애업적 전시회(20~28일), 기원절 5주년 기념식(28

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정연합은 창시자의 탄신일과 기원절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한 해를 시작한다"며 "천주평화연합(U PF),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일), 국제지도자회의(18~21일)와 세계국회의원연합 국제컨퍼런스(19일), 효정세계평화재단 장학증서 수여식(24일), 2018 가정연합 희망전진대회(22일) 등이다. 국제지도자회의와 세계국회의원연합 컨퍼런스를 뺀 나머지 행사는 경기도평의 청심평화월드센터와 수련원에서 열린다.

서울 잠실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리는 국제지도자회의에는 U PF, IAPP, IAPD를 중심으로 전 세계 정치, 종교, 학술, 언론, 경제, 사회, 비정부기구 지도자들이 참석한다.

서화동 문화선임기자 fireboy@hankyung.com

“소외 이웃에 종교 역할 다할것”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회장



“가정연합은 변함없이 신령과 진리로 구세·구국 운동에 앞장서는 종교 본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고자 합니다.”

이기성 신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회장(사진)이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외된 이웃을 향한 종교인의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한 달째를 맞은 이 회장은 기원절(음력 1월 13일)을 기점으로 다양한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 기념식을 비롯해 기원절 5주년 기념식, 국제지도자회의(ILC), 효정세계평화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등이다.

이 회장은 “가정연합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 인류가 지향해야 할 참된 평화의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해왔다”면서 “애천·애인·애국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 종교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허연 문화 전문기자

이기성 가정연합 회장 "소외된 이웃 향한 종교인 소명 다할 것" "아프리카 등 해외 선교·활동 강화"



내달 18~21일에는 정치·종교·학술 등 각 분야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평화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지도자회의'가 열린다. 특히 19일에는 세계 70개국 국회의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정착을 모색하는 콘퍼런스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내달 24일에는 국내외 74개국 장학생 약 2천500명에게 총 100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연다. 국내 500명의 장학생 중에는 10대 종단을 대표하는 80명의 장학생과 다문화가정 자녀 300여명, 탈북민 자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 기념행사(2월21일), '천운상속 2018 가정연합 희망전진대회'(2월22일) 등이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올해 아프리카를 전략 선교지로 삼아 해외 선교와 해외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가정연합은 지난달 세네갈에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연 데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남미에서 각각 10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회를 열 예정이며 일본과 오스트리아 빈에서도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회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개최하는 대회에 한학자 총재가 초청을 받아 행사를 준비 중이며, 이와 별도로 만델라의 손녀로부터도 초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평화자동차 명예회장이 박상권 씨도 현재 직접 북한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화자동차가 1년에 자동차 1천500대가량을 조립해 판매한다고 작년 봄 전해 들었다"고 안호열 대외협력본부장이 전했다.

가정연합은 2000년 북측과 합작해 북한에 설립한 평화자동차와 빌딩, 호텔 등의 운영권을 2013년 북측에 넘기고 손을 뗐지만, 박상권 씨는 여전히 평화자동차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이기성 가정연합 회장
[가정연합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이기성 신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한국회장은 "참 사람의 실천으로 좌절과 고통 속에 소외당하는 이웃들을 향한 종교인의 시대적 소명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30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무술년을 맞아 가정연합은 변함없이 진리로 구세구국 운동에 앞장서는 종교 본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정연합은 기원절 5주년 기념식(2월28일)을 비롯한 30여 개의 행사를 내달 2주간 집중적으로 개최한다.

가정연합, 내달 문선명·한학자 총재 생일·기원절 기념행사



이기성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회장(사진제공=가정연합)

주요 행사는 ▲문선명·한학자 총재 생일 기념식(2월21일) ▲기원절 5주년 기념식(2월28일) ▲국제지도자회의(2월18일~21일)▲세계국회의원연합 국제컨퍼런스(2월19일) ▲효정세계평화재단 장학증서 수여식(2월24일) ▲문선명·한학자 총재 생애 업적 전시회(2월20일~28일) 등이다.

국제지도자 회의에는 전세계 70개 나라에서 국회의원 4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비전과 역할'을 주제로 하며,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내달 19일 오후 3시 개최된다.

이밖에 ▲국제과학통일회의 ▲글로벌 효정문화 컨퍼런스 ▲천일국 지도자 총회 ▲천운상속 2018 가정연합 희망전진 대회 등도 열린다고 가정연합측은 설명했다.

이기성 회장은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창시자의 탄신을 경축하고, 창시자의 평화비전인 평화세계 실현을 향한 대장정을 알리며 새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이 내달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생일·기원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잇달아 개최한다.

가정연합은 2월 18일~28일 잠실 롯데월드호텔,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 등에서 천주평화연합,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세계평화종교인연합과 공동으로 국제지도자회의(ILC)를 비롯한 각종 기념행사를 연다고 이기성 가정연합 한국 회장이 30일 밝혔다.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 및 기원절 5주년 주요 행사 일정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 기념행사	2월21일 09:30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
문선명·한학자 총재 생애업적전시회	2월20일~28일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
국제지도자회의(ILC)	2월18일~21일	잠실 롯데월드호텔
세계국회의원연합 국제컨퍼런스	2월19일 15:00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018 가정연합 희망전진대회	2월22일 10:30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
효정세계평화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2월24일 11:00	가평 청심청소년수련원
기원절 5주년 기념식	2월28일 10:00	가평 천주청평수련원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기원절 행사 내달 21일 가평 청심평화월드서 개최 이기성 한국회장 “보름동안 30여개 국제행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기성(사진) 한국회장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 및 기원절 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문·한 총재 탄신일(기원절)인 다음달 21일 오전 9시30분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기원절 5주년 기념식을 진행하며, 약 보름 동안 30여개의 매머드급 국제행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주요 행사로는 기원절 5주년 기념식을 비롯해 국제지도자회의(ILC), 효정세계평화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문선명·한학자 총재 생애업적 전시회, 효정국제학술콘퍼런스, 국제과학통일회의(ICUS) 등이다. 한 총재는 기념 행사에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평화세계 구현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ILC는 다음달 18일부터 사흘간 잠실롯데호텔에서 정치·종교·정치·학술·언론·경제·사회·NGO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난문제 해결과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는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주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2018 국제지도자 콘퍼런스’가 세계 70개국 국회의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24일에는 한학자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국내외 장학생 2444명에게 장학금 100억원이 전달된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해마다 국내 500여명, 해외 190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정 자녀 300여명과 탈북민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이 전달된다.

IAPP International Conference 2018





인사말씀하는 덴 버튼 전 미연방 하원의원



축사하는 페데리코 프랑코 고메스 전 파라과이 대통령



2018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주요인사들



2018 동북아평화선언문에 서명하는 세계국회의원들

70개국 의원들 “평창” 통해 남북 관계 개선 소망”



7 70개국 의원들 “평창” 통해 남북 관계 개선 소망”

세계 70개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단체인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이 오늘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각국 전현직 국회의원 250여명은 '동북아 평화선언'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평화 국회의원연합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과 공동으로 아시아와 유럽,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70개국, 25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IAPP 2018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북핵문제 해결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동북아평화선언문을 채택했으며, 동북아 지역 평화인프라가 될 한일터널 건설과 한반도중단철도 연결 등 '유라시아의 교통망' 건설도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 또한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평창올림픽을 통해 조성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덴 버튼 전 미연방 하원의원(14선)과 파라과이 Federico Franco Gomez 전 대통령, 마다가스카르 Jean Max Rakotomamonjy 국회의장, 피지 Jiko Fatafehi Luveni 국회의장, 세인트루시아 Andy Glenn Daniel 상원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IAPP는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가 간 영토분쟁과 테러, 종교 및 인종 갈등, 기후변화와 빈곤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평화세계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결성됐습니다.

70개국 전·현직 국회의원 "평창올림픽으로 남북 관계 개선 소망"



세계 70개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단체인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이 오늘(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댄 버튼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해 250여 명의 각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환영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행사에서 '동북아 평화선언'을 채택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동북아의 번영과 세계평화를 촉진하도록 한중일 정상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중·일이 한·일 해저터널과 한반도 종단철도를 유라시아 철도 교통망에 연결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북핵 관련 '동북아 평화선언' 채택

세계평화 국회의원연합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과 공동으로 아시아와 유럽,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70개국, 25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IAPP 2018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북핵문제 해결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동북아평화선언문을 채택했으며, 동북아 지역 평화인프라가 될 한일터널 건설과 한반도종단철도 연결 등 '유라시아의 교통망' 건설도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 또한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평창올림픽을 통해 조성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댄 버튼 전 미연방 하원의원(14선)과 파라과이 Federico Franco Gomez 전 대통령, 마다가스카르 Jean Max Rakotomamonjy 국회의장, 피지 Jiko Fatafehi Luveni 국회의장, 세인트루시아 Andy Glenn Daniel 상원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IAPP는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영토분쟁과 테러, 종교 및 인종갈등, 기후변화와 빈곤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평화세계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결성됐습니다.

70개국 전·현직 국회의원 "평창올림픽으로 남북관계 개선 소망"



국회 콘퍼런스에 각국서 250명 참석... '동북아 평화선언' 채택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세계 70개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단체인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IAPP)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덴 버튼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해 250여 명의 각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환영사를 했다.

이들은 행사에서 '동북아 평화선언'을 채택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동북아의 번영과 세계평화를 촉진하도록 한중일 정상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중일이 한일 해저터널과 한반도 종단철도를 유라시아 철도 교통망에 연결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70개국 전·현직 의원 '동북아 평화선언' 채택

세계 70개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단체인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250여 명의 각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환영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행사에서 '동북아 평화선언'을 채택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IAPP,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촉구하는 '동북아 평화선언문' 채택



【서울=뉴스시스】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은 2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70개국 250명의 국회의원을 포함 450명의 각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IAPP 2018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반도중단철도 복원해 유라시아 철도와 연계하는 '피스로드'도 제안

【서울=뉴스시스】위클리 뉴스시스=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은 2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70개국 250명의 국회의원을 포함 450명의 각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IAPP 2018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댄 버튼(Dan Burton) 전 미연방 하원의원(14선)과 호세 데 베네치아(Jose De Venecia) 전 필리핀 하원의장, 페데리코 프랑코 고메스(Federico Franco Gomez) 전 파라과이 대통령, 에뎜 코쥬(Agbéyomé Kodjo) 전 토고 총리, 흐브리양 음디쿠리오 부룬디 상원의장, 진 맥스 라코토마몬지(Jean Max Rakotomamonjy) 마다가스카르 국회의장, 지코 루베니(Jiko Fatafehi Luveni) 피지 국회의장, 앤디 다니엘(Andy Glenn Daniel) 세인트루시아 상원의장 등 한국, 미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알바니아, 시리아, 인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네팔, 피지, 멕시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바베이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세네갈 등이 참석 했다.

임종성 의원은 환영사에서 "이번 'IAPP 2018 국제지도자 콘퍼런스'의 주제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세계평화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역할'이어서 기대가 크다"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민주적 방식에 의한 외교력과 억제력을 활용하고, 이와 함께 북한과 소통하며, 대화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댄 버튼 전 미연방 하원의원은 "한 국가의 문제는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에,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러 국가가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중 하나는 남북한의 문제로 남북한에서 벌어지는 평화의 변화는 전 세계 평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리가 가진 영향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가 함께 변화시켜야 가능하다"며, "어떤 정당에 속해있던 협력과 존중을 되새기며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페데리코 프랑코 고메스 전 파라과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의 조화롭고 완벽한 평화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며, "평화롭게 개최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이 한국을 비롯해 모든 세계인들이 평화를 위한 단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행사는 귀빈소개, 영상상영, 리틀엔젤스예술단 축하공연, 댄 버튼 전 미연방 하원의원 인사말씀, 임종성 국회의원 환영사, 페데리코 프랑코 고메스 전 파라과이 대통령 축사, 대륙별 대표의원 연설, 호세 베네치아 전 필리핀 국회의장 2018 IAPP 동북아 평화선언, 그리고 '피스로드 2018' 세계 출발식을 마지막으로 모든 행사의 막을 내렸다.

아시아 대륙 대표로 등단한 심재권 의원은 "평창올림픽 덕분에 긴 시간 단절됐던 남북 대화가 재개됐고, 그 결과 북한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그리고 고위급 대표단이 휴전선을 넘어 평창을 찾아왔다"며, "이제는 제3의 길, 당사국들의 대화와 합의에 의해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화적 수단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북핵문제 해결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으며 '동북아 평화선언문'도 채택했다.

또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개선되기를 기원했다. 특히 한·중·일 국가 정상과 국회가 적극 공조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귀중한 평화인프라가 될 한일터널 건설과 한반도중단철도 연결이 실현되고, 이를 통해 일본에서 한국과 중국을 거쳐 아시아 전역은 물론, 러시아와 유럽까지 왕래할 수 있는 '유라시아의 교통망' 구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IAPP는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가 간 영토분쟁과 테러, 종교 및 인종갈등, 기후변화와 빈곤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평화세계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결성됐으며, 이듬해 2월 2일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113개국 현직 국회의원 450명이 참가한 가운데 'IAPP 총회'가 열렸다. 특히 총회에는 북한의 핵무장을 성토했고,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세계평화국회의원 서울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날 행사의 피날레로 '피스로드 2018' 세계 출발식이 마련됐다. 주요국가와 세계대륙을 상징하는 16명의 대표들이 국회 잔디광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구촌 피스로드 2018 대장정'의 막을 열었다. 이것을 시발로 지구촌 130개 국가에서 일제히 국가별로 자전거, 도보, 자동차 등으로 중주하는 피스로드 대장정이 펼쳐진다.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이 날 피스로드를 통해 이 시대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중부일보

임종성, IAPP 2018 국제지도자 콘퍼런스 개최

세계 70개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단체인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IAPP)'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을)과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공동주최로 열린 IAPP 2018 국제 콘퍼런스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덴 버튼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해 250여 명의 각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사에서 '동북아 평화선언'을 채택하며 "대한민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동북아의 번영과 세계평화를 촉진하도록 한·중·일 정상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며 "한·중·일이 한·일 해저터널과 한반도 종단철도를 유라시아 철도 교통망에 연결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종성 의원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민주적 방식에 의한 외교력과 역제력을 활용하고, 이와 함께 북한과 소통하며, 대화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대화로 잃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정착과 세계평화라는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융합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세계일보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관심 “남북 공동입장, 역사적 사건” 평가

콘퍼런스 이모저모

리틀엔젤스예술단 공연으로 시작
70개 나라 의원·대사 450여명 참석
국내서도 여야 의원 100여명 동참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특별 세션에는 세계 70개 나라 국회의원과 각국 대사 등 450여명이 참석해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IAPP의 비전과 역할'을 주제로 열린 논의를 펼쳤다. 우리나라에서도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야 의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리틀엔젤스예술단의 공연과 함께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IAPP가 채택한 '2018 IAPP 동북아 평화선언'에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한·중·일이 한·일 해저터널과 한반도 종단철도를 유라시아철도 교통망에 연결하는 '피스로드 프로젝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것도 제안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며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며 "이번 대회에는 북한 대표단도 참가하며 얼어붙은 남북한 간 해빙 길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간 교류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이 세계인의 진정한 '평화올림픽'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심재권 위원장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고, 마침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덴 버튼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공동의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IAPP 2018 국제 콘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상배선임기자

페데리코 프랑코 전 파라과이 대통령은 "파라과이는 한국에서 비행시간만 52시간이 걸리는 나라"라며 "출발 전 '왜 (52시간이나 걸려) 한국에 가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한국이 완벽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방문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이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올림픽은 굉장히 성공적이고 평화롭게 개최되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반색했다.

이어진 대륙별 대표의원 연설에서는 세계평화를 위해 협력이 중요하는 의견이 나왔다. 필리핀 국회의장을 지낸 호세 드베네치아 IAPP 공동대표는 "평창올림픽에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한 선수들이 공동입장한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평화가 어렵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며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줬던 화해 제스처를 이어나가고 정치·경제적으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평화는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안 돼... 인류가 힘 합쳐야”

세계평화의원연합 국제 콘퍼런스

북핵문제 등 분쟁·갈등 해결방안 논의
“北 타격은 동북아와 세계에 재앙 초래”
韓 대표 심재권 의원, 평화적 해법 강조

“평창올림픽, 남북관계 개선 계기 되길”
토론 마친 뒤 ‘동북아 평화선언’ 채택도
한·일 해저터널 등 ‘피스로드’ 협력 다짐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란 주제로 IAPP 2018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전 세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며 평화를 확립할 방안을 논의했다. 대륙별 국회의원 대표 등 참석자들은 북핵 문제 등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사안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세계 평화 확립을 위해 세계 인류가 힘을 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댄 버턴(14선·전 미국 하원의원) IAPP 공동의장은 환영사에서 전 세계 국회의원들을 향해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전쟁을 겪게 된다”며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버턴 공동의장은 이어 “전 세계 국회의원들이 세계 평화를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동 노력을 통해 전 세계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버턴 의장은 또한 촛불 시위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좀더 안정화·성숙화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여줬다. 폭력 없이 민주주의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에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륙별 대표의원의 발표도 이어졌다. 한국 대표로 나선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발표에서 “우리는 결코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왼쪽 다섯번째) 등 국내외 인사들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2018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에 제재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분명해졌다”며 “제재와 압박이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가져오리라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제재가 한계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군사적 공격도 한 수단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에 대한 타격은 전면전에 이를 가능성이 높고, 이는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와 전 세계적으로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제3의 길’, 당사국들의 대화와 합의에 의해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화적 수단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입구를 북한 핵활동 동결로, 그 출구를 북한 비핵화로 하는 당사국들 간의 대화 틀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의 노력을 지지해 주시고, 고국에 돌아가서 남북대화, 북·미 대화는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도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응원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르투갈에서 참석한 안젤라 게하 상원의원은 연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세계 평화를 위한 중요한 노력 중 하나”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 세계 국가기관과 NGO(비정부기구) 간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포르투갈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모잠비크·동티모르 등과 협력하며 다양한 지속가능 발전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세계가 가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도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며 “세계의 안전과 안보는 그냥 얻어지는 것 아니

다.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치고 협력을 해야 공동 번영과 평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세계 평화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레베리앙 은디쿠리요브 룬디 상원의장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지코 루베니 피지 국회의장은 “허리케인이나 홍수와 같은 기후변화가 피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 세계가 나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마친 뒤 2018 IAPP 동북

아 평화선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이어 개최될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동북아 번영과 세계 평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중·일 정상과 국회가 적극 공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일은 한·일 해저터널과 한반도 종단철도를 유라시아철도와 교통망에 연결하는 ‘피스로드 프로젝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True Parents' Birthday





케이크커팅



문선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환영사



8개 종단대표 축원



연합합창단 기념축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부모님 성탄 및 기원절 5주년 행사 예물 받는 한학자 총재



【가평=뉴시스】최진석 기자 = 21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천지인 참부모님 성탄 및 기원절 5주년 행사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있다. 2018.02.21.



【가평=뉴시스】최진석 기자 = 한학자(가운데 왼쪽)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21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천지인 참부모님 성탄 및 기원절 5주년 행사에서 예물봉정을 받고 있다. 2018.02.21.

황금 시바견 모형 받은 한학자 총재



【가평=뉴시스】최진석 기자 =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21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천지인 참부모님 성탄 및 기원절 5주년 행사에서 황금으로 만든 시바견 모형 예물을 받고 있다. 2018.02.21.

케이크 커팅하는 한학자 총재



【가평=뉴시스】최진석 기자 = 한학자(왼쪽)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21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천지인 참부모님 성탄 및 기원절 5주년 행사에서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2018.02.21.

환영사하는 문선진 세계회장



【가평=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선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이 21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천지인 참부모님 성탄 및 기원절 5주년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02.21.

손 인사하는 한학자 총재



【가평=뉴시스】최진석 기자 = 한학자(왼쪽)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21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천지인 참부모님 성탄 및 기원절 5주년 행사에서 문선진 세계회장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2018.02.2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부모님 성탄 및 기원절 5주년 행사



기념축가 듣는 한학자 총재



【가평=뉴스시스】최진석 기자 =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21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천지인 참부모님 성탄 및 기원절 5주년 행사에서 합창단의 기념축가를 듣고 있다. 2018.02.21.

손 인사하는 한학자 총재



【가평=뉴스시스】최진석 기자 = 한학자(왼쪽)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21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천지인 참부모님 성탄 및 기원절 5주년 행사에서 문선진 세계회장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2018.02.21.

【가평=뉴스시스】최진석 기자 = 21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천지인 참부모님 성탄 및 기원절 5주년 행사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있다. 2018.02.21.

아주경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2018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행사 개최

21일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90개국 3만명 참석

2018년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 기념행사가 21일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심 평화월드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탄신행사에는 전현직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200명,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의 종단장 200여명을 비롯해 종교·외교·교육·문화·NGO지도자 등 미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요르단,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 대만, 필리핀,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파라과이, 케냐, 라이베리아, 잠비아, 토고 등 90개국에서 가정연합 중심신도를 포함해 3만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페데리코 프랑코 고메스(Federico Franco Gomez) 파라과이 전 대통령, 에뎜 코쥬(Agbéyomé Kodjo) 전 토고 총리, 흐브리앙 음디쿠리오(Reverien Ndikuriyo) 부룬디 상원의장, 진 맥스 라코토마몬지(Jean Max Rakotomamonjy) 마다가스카르 국회의장, 지코 루베니(Jiko Fatafehi Luveni) 피지 국회의장, 앤디 다니엘(Andy Glenn Daniel) 세인트루시아 상원의장, 댄 버튼(Dan Burton) 전 미연방 하원의원(14선), 호세 데 베네치아(Jose De Venecia) 전 필리핀 하원의장, 문선진 가정연합 세계회장, 문연아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 문훈숙 유니버설문화재단 이사장, 이기성 가정연합 한국회장, 토머스 월시 UPF 세계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8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행사[사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진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가 본 양위분의 삶은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평화이상세계 실현을 이루기 위한 공적인 삶이었다”며, “갈등과 혼란, 분쟁과 고통의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 도처에서 평화의 씨앗을 심었다”고 마음을 전했다.

종단을 대표해 무슬림의 셰이크 만수르(무리드 수장), 기독교의 요한네스 당가 대주교(사도기독교연합 대표), 천주교의 라파엘 루이스 가오나 대주교, 불교의 프라라요보라무니 종단장, 힌두교의 아차라 슈리바차 고스와미(인도 스리 라다 라마나 종단 대표), 신토의 유키오 와타나베(도코와카 진자 사원 주지사님), 수니파 무슬림의 하찌 바바 에드몬드 브라히 마즈(벡타시 종단 세계의장), 가정연합의 이기성 한국회장 등 8개 종단대표자들이 나와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한 축원기도를 올렸다.

이날 행사는 종단대표 축원, 문선진 가정연합 세계회장 환영사, 기념영상, 한학자 총재 입장 후 꽃다발 증정, 케이크커팅, 예물 봉정, 축시 낭독, 연합합창단 기념축가 순으로 거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문화공연 뮤지컬 ‘효정의 꿈II’와 김기훈 가정연합 세계부회장 역만세삼창, 3부에서는 효정연나눔대축제, 웅알스 공연, 가수 김연자, 가수 인순이, 성악가 풀포트로 이어지는 화합통일 노래 한 마당, 효정가정상 시상,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 기념식을 비롯해 기원절 5주년 기념식, 국제지도자회의(ILC),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2018 국제컨퍼런스, 2018 종교지도자 신년간담회, 세계평화종교인연합 국제컨퍼런스 및 한국 결성대회, 효정세계평화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문선명·한학자 총재 생애업적 전시회, 효정국제학술컨퍼런스, 국제과학통일회의(ICUS), 천일국 지도자 총회, 2018 가정연합 희망전진대회, 제2회 글로벌 효정 문화 컨퍼런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고, 이를 통해 가정연합은 창시자의 탄신을 축하하고 창시자의 평화 비전인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평화세계 실현을 향한 새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광남일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기원절 5주년 행사 개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21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천지인 참부모님 성탄 및 기원절’ 5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문선명 총재 탄신 100주년, 한학자 총재 탄신 77주년이 되는 2020년을 2년여 앞두고 창시자인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가르침에 따라 신령과 진리의 햇불을 들고 애천(愛天)-애인(愛人)-애국(愛國)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종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일(음력 1월 6일) 및 기원절(음력 1월 13일)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한 해를 시작하는 가정연합은 새해 천주평화연합,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세계평화종교인연합과 공동으로 창시자 탄신일과 기원절 기념일을 중심으로 2주 동안 30여 개의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기념행사로는 국제지도자회의(ILC)을 비롯해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2018 국제컨퍼런스, 2018 종교지도자 신년간담회, 세계평화종교인연합 국제컨퍼런스 및 한국 결성대회, 효정세계평화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문선명·한학자 총재 생애업적 전시회, 효정국제학술컨퍼런스, 국제과학통일회의(ICUS), 천일국 지도자 총회, 2018 가정연합 희망전진대회, 제2회 글로벌 효정 문화 컨퍼런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가정연합은 이를 통해 창시자의 탄신을 경축하고 창시자의 평화 비전인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평화세계 실현을 향한 대장정을 알리며 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가정연합, 기원절 5주년 기념행사 개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기원절 등 기념행사 진행



문선진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가 본 양위분의 삶은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평화이상세계 실현을 이루기 위한 공적인 삶이었다’며 “갈등과 혼란, 분쟁과 고통의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 도처에서 평화의 씨앗을 심었다”고 전했다.

본 행사는 종단대표 축원, 문선진 세계회장 환영사, 기념영상, 한학자 총재 입장 후 꽃다발 증정, 케이크커팅, 예물 봉정, 축시 낭독, 연합합창단 기념축가 순으로 거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문화공연 뮤지컬 ‘효정의 꿈II’와 김기훈 가정연합 세계부회장 역만 세삼창, 3부에서는 효정연나눔대축제, 용알스 공연, 가수 김연자, 인순이, 성악가 폴 포츠로 이어지는 화합통일 노래 한 마당, 효정가정상 시상,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탄신 기념식을 비롯해 기원절 5주년 기념식, 국제지도자회의(ILC),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2018 국제콘퍼런스, 2018 종교지도자 신년간담회, 세계평화종교인연합 국제콘퍼런스와 한국 결성대회, 효정세계평화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등을 포함한 30여 개의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린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은 문선명 총재 탄신 100주년, 한학자 총재 탄신 77주년이 되는 2020년을 2년여 앞두고 창시자인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가르침에 따라 신령과 진리의 횃불을 들고 애천(愛天)·애인(愛人)·애국(愛國)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종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일(음력 1월 6일) 및 기원절(음력 1월 13일)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한 해를 시작하는 가정연합은 2018년 새해 천주평화연합,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세계평화종교인연합과 공동으로 창시자 탄신일과 기원절 기념일을 중심으로 2주 동안 30여 개의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기념행사로는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 기념식을 비롯해 기원절 5주년 기념식, 국제지도자회의(ILC),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2018 국제콘퍼런스, 2018 종교지도자 신년간담회, 세계평화종교인연합 국제콘퍼런스 및 한국 결성대회, 효정세계평화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문선명·한학자 총재 생애업적 전시회, 효정국제학술콘퍼런스, 국제과학통일회의(ICUS), 천일국 지도자 총회, 2018 가정연합 희망전진대회, 제2회 글로벌 효정 문화 콘퍼런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며, 이를 통해 가정연합은 창시자의 탄신을 경축하고 창시자의 평화 비전인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평화세계 실현을 향한 대장정을 알리며 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경상매일신문=이태현기자]

▲ 가정연합은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일과 기원절기념일을 중심으로 2주 동안 30여 개의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가정연합 제공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은 지난 21일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일(음력 1월 6일)과 기원절(음력 1월 13일) 기념일을 중심으로 2주 동안 30여 개의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신행사는 전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각 국의 종단장, 각 분야별 지도자, 90개국의 가정연합 중심신도를 포함한 3만여 명이 참석했다.

가정연합은 문선명 총재 탄신 100주년, 한학자 총재 탄신 77주년이 되는 2020년을 2년여 앞두고 창시자인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가르침에 따라 신령과 진리의 횃불을 들고 애천·애인·애국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종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평화이상세계 실현 씨앗 심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행사 개최



© 경안일보

받는 국민종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일(음력 1월 6일) 및 기원절(음력 1월 13일)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한해를 시작하는 가정연합은 창시자 탄신일과 기원절 기념일을 중심으로 2주 동안 30여 개의 기념행사를 갖는다.

2018년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 기념행사는 21일 오전 9시30분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심 평화월드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탄신행사에는 전현직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200명,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의 종단장 200여 명을 비롯해 종교·외교·교육·문화·NGO 지도자 등 미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요르단,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 대만, 필리핀,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파라과이, 케냐, 라이베리아, 잠비아, 토고 등 90개국에서 가정연합 중심신도를 포함해 3만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페데리코 프랑코 고메스(Federico Franco Gomez) 파라과이 전 대통령, 에델 코쥬(Agbeyome Kodio) 전 토고 총리, 흐브리앙 음디쿠리요(Reverien Ndikuriyo) 부룬디 상원의장, 진 맥스 라코토마몬지(Jean Max Rakotomamonjy) 마다가스카르 국회의장, 지코 루베니(Jiko Fatafehi Luveni) 피지 국회의장, 앤디 다니엘(Andy Glenn Daniel) 세인트루시아 상원의장, 댄 버튼(Dan Burton) 전 미연방 하원의원(14선), 호세 데 베네치아(Jose De Venecia) 전 필리핀 하원의장, 문선진 가정연합 세계회장, 문연아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 문훈숙 유니버설문화재단 이사장, 이기성 가정연합 한국회장, 토머스 윌시 UPF 세계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선진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가 본 양위분의 삶은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평화이상세계 실현을 이루기 위한 공적인 삶이었다”며, “갈등과 혼란, 분쟁과 고통의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 도처에서 평화의 씨앗을 심었다”고 마음을 전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은 문선명 총재 탄신 100주년, 한학자 총재 탄신 77주년이 되는 2020년을 2년여 앞두고 창시자인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가르침에 따라 신령과 진리의 햇불을 들고 애천(愛天)·애인(愛人)·애국(愛國)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문선명·한학자 탄신 기념행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새해 평화세계 실현 대장정 시작



© 경안일보

받는 국민종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戊戌年(무술년)을 맞아 가정연합은 변함없이 신령과 진리로 구세구국운동에 앞장서는 종교본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꿈이자 인류의 소망인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참가정운동과 축복운동에 힘쓰며, 참사랑의 실천으로 좌절과 고통 속에 소외 받은 이웃들을 향한 종교인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일(음력 1월 6일) 및 기원절(음력 1월 13일)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한해를 시작하는 가정연합은 2018년 새해 천주평화연합,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세계평화종교인연합과 공동으로 창시자 탄신일과 기원절 기념일을 중심으로 2주 동안 30여 개의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기념행사로는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 기념식을 비롯하여 기원절 5주년 기념식, 국제지도자회의(ILC),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2018 국제컨퍼런스, 2018 종교지도자 신년간담회, 세계평화종교인연합 국제컨퍼런스 및 한국 결성대회, 효정세계평화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문선명·한학자 총재 생애업적 전시회, 효정국제학술콘퍼런스, 국제과학통일회의(ICUS), 천일국 지도자 총회, 2018 가정연합 희망전진대회, 제2회 글로벌 효정 문화 콘퍼런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며, 이를 통해 가정연합은 창시자의 탄신을 경축하고 창시자의 평화 비전인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평화세계 실현을 향한 대장정을 알리며 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은 문선명 총재 탄신 100주년, 한학자 총재 탄신 77주년이 되는 2020년을 2년여 앞두고 창시자인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가르침에 따라 신령과 진리의 햇불을 들고 애천(愛天)·애인(愛人)·애국(愛國)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 및 기원절 5주년 기념행사 개최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일(음력 1월 6일) 및 기원절(음력 1월 13일)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한 해를 시작하는 가정연합은 2018년 새해 천주평화연합,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세계평화종교인연합과 공동으로 창시자 탄신일과 기원절 기념일을 중심으로 2주 동안 30여 개의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기념행사로는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 기념식을 비롯하여 기원절 5주년 기념식, 국제지도자회의(ILC),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2018 국제컨퍼런스, 2018 종교지도자 신년간담회, 세계평화종교인연합 국제컨퍼런스 및 한국 결성대회, 효정세계평화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문선명·한학자 총재 생애업적 전시회, 효정국제학술컨퍼런스, 국제과학통일회의(ICUS), 천일국 지도자 총회, 2018 가정연합 희망전진대회, 제2회 글로벌 효정 문화 컨퍼런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며, 이를 통해 가정연합은 창시자의 탄신을 경축하고 창시자의 평화 비전인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평화세계 실현을 향한 대장정을 알리며 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은 문선명 총재 탄신 100주년, 한학자 총재 탄신 77주년이 되는 2020년을 2년여 앞두고 창시자인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가르침에 따라 신령과 진리의 햇빛을 들고 애천(愛天)애인(愛人)애국(愛國)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종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戊戌年(무술년)을 맞아 가정연합은 변함

없이 신령과 진리로 구세구국운동에 앞장서는 종교 본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꿈이자 인류의 소망인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참가정운동과 축복운동에 힘쓰며, 참사랑의 실천으로 좌절과 고통 속에 소외 받은 이웃들을 향한 종교인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효정의 빛 온누리에 희망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올해 30여개 기념행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은 2018년 천주평화연합,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세계평화종교인연합과 공동으로 30여 개의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행사는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 기념식을 비롯해 기원절 5주년 기념식, 국제지도자회의,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국제컨퍼런스, 종교지도자 신년간담회, 세계평화종교인연합 국제컨퍼런스 및 한국 결성대회, 효정세계평화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2018 가정연합 희망전진대회 등이다.

가정연합은 이를 통해 창시자의 평화 비전인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평화세계 실현을 향한 대장정을 알리며 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기획]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일 및 기원절 기점으로 30여개 기념행사 개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이 문선명 총재 탄신 100주년, 한학자 총재 탄신 77주년이 되는 2020년을 2년여 앞두고 창시자인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가르침에 따라 신령과 진리의 횃불을 들고 애천(愛天)·애인(愛人)·애국(愛國)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종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일(음력 1월 6일) 및 기원절(음력 1월 13일)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한 해를 시작하는 가정연합은 창시자 탄신일과 기원절 기념일을 중심으로 2주 동안 30여 개의 기념행사를 갖는다.



탄신행사에 참석한 한학자 총재[사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국제지도자회의 (ILC)

국제지도자회의(ILC)가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천주평화연합(UPF),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세계평화종교인연합(IAPD)을 중심으로 전 세계 정치·종교·정치·학술·언론·경제·사회·NGO 지도자 및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잠실롯데호텔에서 개최돼 세계 난문제 해결과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댄 버튼(Dan Burton) 전 미연방 하원의원(14선)과 호세 데 베네치아(Jose De Venecia) 전 필리핀 하원의장, 페데리코 프랑코 고메스(Federico Franco Gomez) 전 파라과이 대통령, 에뎜 코쥬(Agbéyomé Kodjo) 전 토고 총리, 흐브리앙 음디 쿠리오 부룬디 상원의장, 진 맥스 라코토마몬지(Jean Max Rakotomamonjy) 마다가스카르 국회의장, 지코 루베니(Jiko Fatafehi Luveni) 피지 국회의장, 앤디 다니엘(Andy Glenn Daniel) 세인트루시아 상원의장 등 한국, 미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시리아, 인도, 태국, 필리핀, 피지, 멕시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세네갈 등 70개국 국가지도자들이 참석한다.

▶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2018 국제콘퍼런스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주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2018 국제콘퍼런스'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IAPP의 비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19일 오후 3시에 세계 70개국 국회의원 250명 포함 각계 지도자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개최했다.

개회선언, 귀빈소개, 영상상영, 리틀엔젤스예술단 축하공연, 댄 버튼 전 미연방 하원의원 인사말씀, 임종성 국회의원 환영사, 페데리코 프랑코 고메스 전 파라과이 대통령 축사, 대륙별 대표의원 연설, 호세 베네치아 전 필리핀 국회의장 2018 IAPP 동북아 평화선언, 그리고 '피스로드 2018' 세계 출발식을 진행했다.

▶ 세계평화종교인연합(IAPD) 국제콘퍼런스 및 한국 결성대회

한국종교협의회는 19일 오후 2시에 국내외 종교지도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IAPD 국제콘퍼런스 및 한국 결성대회'를 함께 주관하며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 종교인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행사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기성 한국회장, 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총무원장, 대한불교 관음종 홍파 총무원장, 대한불교조계종 대우 스님, 한국이슬람교 최영길 이사장, 대한천리교 이순훈 교동, 대중교 홍수철 총전교,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배동철 장로, 국제기독교선교연합회 안정수 회장, 천도교 최인국 회장을 비롯하여 미국 ACLC 스타링스 대주교 등 10여개 종단의 종단장 및 종교지도자가 참석했다. 이후 3월부터는 전국단위로 지역별 IAPD 결성식을 통해 지역의 종교인들이 앞장서 나가는 지역 평화운동을 전개한다.

▶ 2018 가정연합 희망전진대회

가정연합은 1954년 창립 이후 창시자이신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가르침에 따라 신령과 진리의 횃불을 들고 시대가 요청하는 국가적 의제와 세계적 이슈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영적 기반과 외적 자산을 투입해왔다.

지난해 가정연합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희망 대한민국! 대국민 화합통일 전진대회'를 5대 권역, 시·군·구, 읍·면·동에서 실시했으며, 지난 11월 11일에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온 2천명의 지도자와 시민 그리고 8만명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참한 '2017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를 개최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 실현을 위한 평화의 대장정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2018년 戊成年(무술년)를 맞아 가정연합은 애천·애인·애국의 이념을 바탕으로 신앙의 조국 대한민국의 영적 각성과 한반도 평화실현 및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 성취를 염원하는 '천운상속 2018 가정연합 희망전진대회'를 오는 2월 22일 2만여 명의 각계 지도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개최한다.

▶ 효정세계평화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및 봉사상 시상식

재단법인 효정세계평화재단은 오는 2월 24일 국내외 74개국 800여명의 장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단 설립자인 한학자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국내외 장학생 2,444여명에게 장학금 100억원을 전달한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해마다 국내외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500명의 장학생 중에는 10대 종단을 대표하는 80명의 장학생들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정 자녀 300명과 탈북민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증서 수여식과 동시에 진행되는 효정봉사상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한 봉사자를 선정해 시상과 함께 부상이 수여된다. 봉사상은 지역사회 봉사, 다문화 자원봉사, 문화예술 재능나눔, 청소년 부문으로 선발한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2013년 2월 원모평애재단으로 출범해 2016년 10월 명칭과 더불어 문화예술, 학술, 선학평화상 지원 등 그 활동영역을 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기원절 5주년 기념식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는 기원절(基元節·음력 1월 13일)은 가정연합의 주요 기념행사 중 하나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성경에 근거한 6000년의 죄악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와 역사가 출발하는 날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문선명 총재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류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창조본연의 죄 없는 역사로 돌아가는 '복귀섭리역사'이다. 따라서 기원절은 하나님 나라인 천주평화통일국(천일국·天—國)을 지상에 실제적으로 정착시키는 섭리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기원절 5주년 기념식은 2월 28일(음력 1월 13일) 오전 10시 전 세계 통일가 지도자와 식구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주청평수련원 대강당에서 열리며,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한해 공로자에 대한 특별시상이 진행되며 향후 가정연합의 활동방향과 정책이 발표된다.

▶ 기타행사

그 외 행사로 가정연합 한국교회는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참사랑의 전통과 기원절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2018 효정 사랑나눔축제를 연인원 1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천일국 지도자 총회는 가정연합 각국 회장들을 비롯하여 통일가를 대표하는 전 세계 지도자 500여 명이 모여 2018년 가정연합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로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정상급 지도자와 학자들이 함께 인류의 미래를 위한 담론을 논의하는 국제과학통일회의, 이 시대의 주요 이슈에 관한 학술적 연구 성과를 함께 나누는 효정국제학술콘퍼런스, 청년학생들에게 충효의 가치를 심어주는 심정문화 Youth Camp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거행된다.

세명일보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행사, 90개국 3만명 참석

- 효정(孝情)의 빛, 온누리에 희망으로



▲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행사 전경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은 문선명 총재 탄신 100주년, 한학자 총재 탄신 77주년이 되는 2020년을 2년여 앞두고 신령과 진리의 횃불을 들고 애천(愛天)·애인(愛人)·애국(愛國)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종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일(음력 1월 6일) 및 기원절(음력 1월 13일)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한 해를 시작하는 가정연합은 창시자 탄신일과 기원절 기념일을 중심으로 2주 동안 30여 개의 기념행사를 갖는다.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 기념행사'는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탄신행사에는 전현직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200명,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의 종단장 200여명을 비롯해 중외교·교육·문화·NGO지도자 등 미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요르단,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 대만, 필리핀,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파라과이, 케냐, 라이베리아, 잠비아, 토고 등 90개국에서 가정연합 중심신도를 포함해 3만명이 참석했다.

또한 '국제지도자회의(ILC)'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천주평화연합(UFP),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세계평화종교인연합(IAPD)을 중심으로 전 세계 정치·종교·정치·학술·언론·경제·사회·NGO 지도자 및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잠실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어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주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2018 국제콘퍼런스'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IAPP의 비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난 19일 오후 3시, 세계 70개국 국회의원 250명 포함 각계 지도자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기타 행사로는 '천운상속 2018 가정연합 희망전진대회'를 2월 22일 2만여 명의 각계 지도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심평화월드센터, (재)효정세계평화재단은 오는 24일 국내외 74개국 800여명의 장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단 설립자인 한학자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국내외 장학생 2,444여명에게 장학금 100억원을 전달한다.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는 '기원절(基元節 음력 1월 13일)' 기념식은 오는 28일(음력 1월 13일) 오전 10시 전 세계 통일가족 지도자와 식구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주청평수련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세계일보

인류대가족·평화세계 실현 위한 '큰 걸음' 되새기다

가정연합, 청심평화월드센터서 기념행사

문선명·한학자 총재 꿈과 업적 재조명 전·현직 의원, 각 종단장 등 400명 비롯 전세계 90개국 신도 3만여명 참석

가평·장승옥 선임기자 jswaok@segye.com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을 창시한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탄신(음력 1월 6일) 기념행사가 21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거행됐다. '효정(孝情)의 빛 온누리에 희망으로'라는 주제를 내건 행사에는 전·현직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200여명과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의 종단장 200여명을 비롯해 전 세계 90개국 가정연합 신도 등 3만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3부로 나누어 5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1부 행사는 각 종단 대표들의 탄신 축원, 문선진 가정연합 세계회장의 환영사, 기념영상 상영, 한학자 총재 입장 후 꽃다발 증정, 한국 일본 연합합장단 기념축가순으로 열렸다. 2부는 문화공연 뮤지컬 '효정의 꿈2', 그리고 3부 효정연가대축제로 이어졌다.

윤영호 가정연합 사무총장의 개회선언 직후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 등 8개 종단장들이 차례로 나서 각자 종교적언어로 문·한 총재 탄신을 축하했다. 종단지도자들은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대가족을 이루기 위한 문·한 총재의 노력은 인류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지구상의 모든 분쟁 해결을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이어 등단한 문선진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직계 자녀로서 본 두분의 삶은 오직 하늘부모님의 해방과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공적인 삶 그 자체였다"면서 "최근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아프리카정상회의에 전·현직 대통령 11명을 포함한 아프리카 지도자 1200명이 참석, 공생·공영·공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신아프리카'를 창건한 것은 하나의 결실"이라고 전했다.

문 회장은 "아버님의 성화 이후 저의 어머니도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1943년 태어난 어머니는 1960년 아버님과 성혼한 이후 온전히 하늘의 뜻에 따라 당신의 삶을 살아오셨다"면서 "두 분은 함께 인류의 참부모로서 책임을 지셨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어머님께서 지난 5년 동안 확고한 신념과 명쾌한 비전,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활동을 이끌어왔다"면서 "어머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전 세계 모든 운동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1부 행사 중간 무렵 문 회장의 소개로 단상에 오른 한 총재는 미국 일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각 대륙 대표들의 예물과 축하인사를 받았다.



21일 경기도 가평군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시자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탄신 기념행사에서 한 총재가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가평·서상배 선임기자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종교관을 조명한 대형 뮤지컬 '효정의 꿈2'가 21일 경기도 가평군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공연되고 있다. 가평·이재문 기자

“참가정 문화 확산... 인류 한가족 이상 실현하자”

신한국가정연합 희망전진대회

한학자 총재·문선진 회장 등 참석
1만6000명 ‘평화세계’ 결의다져
사물놀이패 등 신명나는 공연
5개 권역서 지역대회 개최 예정

가평=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은 22일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신한국가정연합 희망전진대회’를 열고 참가정 문화 확산과 평화운동을 통한 국가적 위기 해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가정연합 한학자 총재, 문선진 가정연합 세계회장, 문연아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 이기성 가정연합 한국회장, 송광석 천주평화연합 한국회장, 이현영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한국회장, 그리고 각 지역 평화대사 등 1만60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창시자인 문선명·한



22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신한국가정연합 희망전진대회’에서 이기성 가정연합 한국회장과 청년학생연합 회원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평=하상윤기자

학자 총재의 탄신일(21일·음력 1월6일)을 기념해 마련됐다. 신도들은 문·한창시자가 제창한 애천·애인·애국이념에 따라 인류의 소망인 ‘인류 한가족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기성 회장은 “하나님 아래 인류 한가족의 이상을 실현해나가는 참가정 운동과 축복, 평화운동에 진력하자”고 강조했다. 김영휘 가정연합 원로지도자(천의원 원장)는 기도를 통해 “진리

의 말씀을 실천하고 인격 수양을 하며 축복을 통해 이상가정을 이루어 세상에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고 하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의 길을 걷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문화행사에서는 한국의 전통 사물놀이패와 일본의 전통놀이패가 함께 만든 ‘하늘가락 요사코이’를 선보였다. 이어 가정연합의 연합합창팀이 ‘Tomorrow’와 ‘행복을 주는 사람’, ‘상록수’를 불러

축제분위기를 연출했다.

가정연합 관계자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가정연합 창시 이념에 따라 남북통일을 실현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 대가족을 이루는 날까지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연합은 이날 신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서울·인천,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 5개 권역에서 잇달아 지역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Hyo Jeong Global Peace Foundation Scholarship Award Ceremony





설립자 말씀하는 한학자 총재



환영인사하는 문연아 효정세계평화재단 이사장



축사하는 에당코조 전 토고 총리



장학증서 수여하는 한학자 총재

2018.02.25



재단법인 효정세계평화재단은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국내외 74개국 2천4백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10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가평군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된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재단 설립자인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국내외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했습니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매년 국내 500여 명, 해외 1천90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효정세계평화재단, 74개국 학생에 장학금 100억원 전달



효정세계평화재단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
[효정세계평화재단 제공]

▲효정세계평화재단(이사장 문연아)은 24일 경기도 가평군 청심국제청소련수련원에서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에는 한국, 미국, 독일, 폴란드, 스리랑카, 대만, 태국 등 총 74개국 장학생 2천444명에게 장학금 총 100억원을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효정세계평화재단, 다국적 장학생에게 장학금 100억원 전달



【서울=뉴스시스】재단법인 효정세계평화재단(이사장 문연아)은 24일 오전 11시에 설립자인 한학자 총재와 국내외 장학생들과 학부모 포함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 청심국제청소련수련원 체육관에서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효정세계평화재단, 74개국 2,444명 장학생에게 장학금 100억원 전달

【서울=뉴스시스】위클리 뉴스시스= 재단법인 효정세계평화재단(이사장 문연아)은 24일 오전 11시에 설립자인 한학자 총재와 국내외 장학생들과 학부모를 포함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 청심국제청소련수련원 체육관에서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미국, 독일, 폴란드, 스리랑카, 대만, 태국, 홍콩, 일본, 요르단, 벨라루스, 칠레, 콜롬비아, 가봉, 니카라과, 모잠비크, 카메룬 등 74개국 장학생에게 장학금 100억원을 전달했다.

한학자 총재는 설립자 말씀에서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파괴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재는 이어 "장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꿈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해 하나님께서 창조한 건강한 지구, 미래가 있는 인류, 하나님을 중심한 자유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장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해마다 국내 500여 명, 해외 1,90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500명의 장학생 중에는 10대 종단을 대표하는 80명의 장학생들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다문화 가정 자녀 300여명과 탈북민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됐다. 초종교 장학금은 대종교, 성균관, 한국이슬람교, 한국불교 태고종, 대한천리교, 기독교선교연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등의 학생들에게 수여됐다.

에뎀 코쥬(Agbéyomé Kodjo) 전 토고 총리는 축사를 통해 "이번 장학금을 수여받은 많은 학생들이 효정의 마음으로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장학생들의 성장을 기원했다.

행사는 이기성 가정연합 한국회장 대표보고, 경과보고 영상상영, 문연아 이사장 환영사, 에뎀 코쥬(Agbéyomé Kodjo) 전 토고 총리, 서신남독, 장학생 대표 합창, 한학자 총재 설립자 말씀, 장학증서 수여 및 봉사상 시상, 도쿠노 에이치 가정연합 일본회장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문연아 효정세계평화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장학생과 봉사자들은 국가와 세계의 미래를 짊어질 창의적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이러한 역량을 겸비한 '글로벌 피스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머물지 않고, 여러분들을 전방위에서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효정봉사상 시상식에서는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한 봉사자를 선정해 시상과 함께 부상이 수여됐다. 지역사회부문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해온 김경태 씨와 수지침 요양원봉사를 계속해온 남선숙 씨, 다문화부문은 다문화가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온 오오스마 미쯔코 씨, 청소년부문은 교도소 봉사활동을 해온 김효혜 씨와 백혈병 환우 돕기를 해온 위예성 씨가 각각 수여받았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2013년 2월 원모평애재단으로 출범해 2016년 10월 명칭과 더불어 문화예술, 학술, 선학평화상 지원 등, 그 활동영역을 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주경제

효정세계평화재단, 74개국 2444명 장학생에게 장학금 100억원 전달

재단법인 효정세계평화재단(이사장 문연아)은 24일 설립자인 한학자 총재와 국내외 장학생들과 학부모 포함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 청심국제청소련수련원 체육관에서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미국, 독일, 폴란드, 스리랑카, 대만, 태국, 홍콩, 일본, 요르단, 벨라루스, 칠레, 콜롬비아, 가봉, 니카라과, 모잠비크, 카메룬 등 74개국 장학생에게 장학금 100억원을 전달했다.



효정세계평화재단, 74개국 2444명 장학생에게 장학금 100억원 전달[사진=효정세계평화재단]

한학자 총재는 설립자 말씀에서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파괴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재는 이어 “장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꿈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해 하나님께서 창조한 건강한 지구, 미래가 있는 인류, 하나님을 중심한 자유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장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해마다 국내 500여 명, 해외 1,90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500명의 장학생 중에는 10대 중단을 대표하는 80명의 장학생들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다문화 가정 자녀 300여명과 탈북민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됐다. 초종교 장학금은 대종교, 성균관, 한국이슬람교, 한국불교 태고종, 대한천리교, 기독교선교연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등의 학생들에게 수여됐다.

에뎜 코쥬(Agbéyomé Kodjo) 전 토고 총리는 축사를 통해 “국가는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폭탄으로 파괴되지 않는다. 국가의 수준이 낮아짐에 따른 부정·부패로 멸망하게 된다. 국민들은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정의는 부패된 판사에 의해 사라지고, 인류애는 사랑이 없는 종교지도자에 의해 사라지면서 국가는 멸망하게 된다. 이번 장학금을 수여받은 많은 학생들이 효정의 마음으로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장학생들의 성장을 기원했다.

행사는 이기성 가정연합 한국회장 대표보고, 경과보고 영상상영, 문연아 이사장 환영인사, 에뎜 코쥬(Agbéyomé Kodjo) 전 토고 총리, 서신남독, 장학생 대표 합창, 한학자 총재 설립자 말씀, 장학증서 수여 및 봉사상 시상, 도쿠노 에이지 가정연합 일본회장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문연아 효정세계평화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장학생과 봉사자들은 국가와 세계의 미래를 짊어질 창의적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효정의 인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때, 미래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이러한 역량을 겸비한 ‘글로벌 피스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머물지 않고, 여러분들을 전방위에서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효정봉사상 시상식에서는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한 봉사자를 선정해 시상과 함께 부상이 수여됐다.

지역사회부문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해온 김경태 씨와 수지침 요양원봉사를 계속해온 남선숙 씨, 다문화부문은 다문화가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온 오오스마 미쯔코 씨, 청소년부문은 교도소 봉사활동을 해온 김효혜 씨와 백혈병 환우 돕기를 해온 위예성 씨가 각각 수여받았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2013년 2월 원모평애재단으로 출범해 2016년 10월 명칭과 더불어 문화예술, 학술, 선학평화상 지원 등, 그 활동영역을 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효정세계평화재단, 74개국에 장학금 100억원 전달

재단법인 효정세계평화재단(이사장 문연아)은 지난 24일 설립자인 한학자 총재와 국내외 장학생들과 학부모 포함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 청심국제청소련수련원 체육관에서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수여식에서는 국내를 비롯해 미국, 독일, 폴란드, 스리랑카, 대만, 태국, 홍콩, 일본, 요르단, 벨라루스, 칠레, 콜롬

비아, 가봉, 니카라과, 모잠비크, 카메룬 등 74개국 2444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 100억원을 전달했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해마다 국내 500여명, 해외 190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500명의 장학생 중에는 10대 종단을 대표하는 80명, 다문화 가정 자녀 300여명, 탈북민 자녀들도 포함됐다.

이기수 기자

효정세계평화재단 74개국 장학생에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효정세계평화재단(이사장 문연아)은 지난 24일 설립자인 한학자 총재와 국내외 장학생들과 학부모 포함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 청심국제청소련수련원 체육관에서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올해는 미국, 독일, 폴란드, 스리랑카, 대만, 태국, 홍콩, 일본, 요르단, 벨라루스, 칠레, 콜롬비아, 가봉, 니카라과, 모잠비크, 카메룬 등 74개국 장학생에게 장학금 100억원을 전달했다.

한학자 총재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파괴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재는 이어 "장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꿈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해 하나님께서 창조한 건강한 지구, 미래가 있는 인류, 하나님을 중심한 자유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 해주기를 바란다"며 장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박상래 기자

경북도민일보

효정세계평화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 효정세계평화재단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 모습.

[경북도민일보 = 정혜윤기자] (재)효정세계평화재단(이사장 문연아)은 24일 설립자인 한학자 총재와 국내외 장학생들과 학부모 포함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 청심국제청소련수련원 체육관에서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미국, 독일, 폴란드, 일본, 요르단, 칠레, 콜롬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등 74개국 장학생에게 장학금 100억원을 전달했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해마다 국내 500여 명, 해외 190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국내 500명의 장학생 중에는 10대 종단을 대표하는 80명의 장학생들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다문화 가정 자녀 300여명과 탈북민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됐다. 초종교 장학금은 대종교, 성균관, 한국이슬람교, 한국불교 태고종, 대한천리교, 기독교선교연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등의 학생들에게 수여됐다.

경북신문

효정세계평화재단, 74개국 장학생에 장학금 100억원 전달



▲ 장학금전달

재단법인 효정세계평화재단(이사장 문연아)은 지난 24일 설립자인 한학자 총재와 국내외 장학생들과 학부모 포함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 청심국제청소련수련원 체육관에서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미국, 독일, 폴란드, 스리랑카, 대만, 태국, 홍콩, 일본, 요르단, 벨라루스, 칠레, 콜롬비아, 가봉, 니카라과, 모잠비크, 카메룬 등 74개국 장학생에게 장학금 100억원을 전달했다.

한학자 총재는 설립자 말씀에서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파괴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재는 이어 "장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꿈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해 하나님께서 창조한 건강하고 강한 지구, 미래가 있는 인류, 하나님을 중심한 자유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장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해마다 국내 500여 명, 해외 190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500명의 장학생 중에는 10대 종단을 대표하는 80명의 장학생들이 포함됐다.

충청투데이

효정세계평화재단, 74개국 2444명 장학금 100억원 전달

재단법인 효정세계평화재단(이사장 문연아)은 지난 24일 국내외 장학생들과 학부모 등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 청심국제청소련수련원 체육관에서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미국, 독일, 폴란드, 대만, 태국, 일본, 가봉 등 74개국 2444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 100억원을 전달했다.

설립자인 한학자 총재는 “장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꿈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해 자유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룩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연아 이사장은 “장학생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미래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효정세계평화재단은 장학생들이 ‘글로벌 피스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전방위에서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정세계평화재단은 해마다 국내 500여 명, 해외 190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충남신문

효정세계평화재단, 장학금 100억 원 전달 74개국 2,444명 장학생 대상



재단법인 효정세계평화재단(이사장 문연아)은 24일 오전 11시에 설립자인 한학자 총재와 국내외 장학생들과 학부모 포함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 청심국제청소련수련원 체육관에서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미국, 독일, 폴란드, 스리랑카, 대만, 태국, 홍콩, 일본, 요르단, 벨라루스, 칠레, 콜롬비아, 가봉, 니카라과, 모잠비크, 카메룬 등 74개국 장학생에게 장학금 100억원을 전달했다.

한학자 총재는 설립자 말씀에서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파괴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재는 이어 “장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꿈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해 하나님께서 창조한 건강한 지구, 미래가 있는 인류, 하나님을 중심한 자유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장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해마다 국내 500여 명, 해외 1,90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500명의 장학생 중에는 10대 종단을 대표하는 80명의 장학생들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다문화 가정 자녀 300여명과 탈북민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됐다. 초종교 장학금은 대종교, 성균관, 한국이스람교, 한국불교 태고종, 대한천리교, 기독교선교연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등의 학생들에게 수여됐다.

메뎀 코조(Agbéyomé Kodjo) 전 토고 총리는 축사를 통해 “국가는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폭탄으로 파괴되지 않는다. 국가의 수준이 낮아짐에 따른 부정 부패로 멸망하게 된다. 국민들은 자력이 없는 의사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정의는 부패된 판사에 의해 사라지고, 인류에는 사람이 없는 종교지도자에 의해 사라지면서 국가가 멸망하게 된다. 이번 장학금을 수여받은 많은 학생들이 효정의 마음으로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장학생들의 성장을 기원했다.

행사는 이기성 가정연합 한국회장 대표보고, 경과보고 영상상영, 문연아 이사장 환영인사, 메뎀 코조(Agbéyomé Kodjo) 전 토고 총리, 서신낭독, 장학생 대표 합창, 한학자 총재 설립자 말씀, 장학증서 수여 및 봉사상 시상, 도쿠노 에이지 가정연합 일본회장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문연아 효정세계평화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장학생과 봉사자들은 국가와 세계의 미래를 짊어질 창의적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효정의 인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때, 미래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이러한 역량을 겸비한 ‘글로벌 피스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머물지 않고, 여러분들을 전방위에서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효정봉사상 시상식에서는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한 봉사자를 선정해 시상과 함께 부상이 수여됐다.

효정세계평화재단, 74개국에 장학금 100억 전달

효정세계평화재단, 장학금 100억원 전달

74개국 2444명 학생에 장학증서 수여



효정세계평화재단은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해 국내·외 장학생 2천400여 명에게 100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효정세계평화재단 제공

국내·외 2천400여 명 장학생 등 대상 '효정봉사상' 김경태·남선숙 씨 등 받아

재단법인 효정세계평화재단은 지난 24일 설립자인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국내·외 장학생들과 학부모 포함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심국제청소련수련원 체육관에서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미국, 독일, 폴란드, 일본 등 74개국 장학생에게 장학금 100억원을 전달했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해마다 국내 500여 명, 해외 1천90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국내 500명의 장학생 중에는 10대 종단을 대표하는 80명의 장학생들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다문화 가정 자녀 300여 명과 탈북민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됐다.

초종교 장학금은 대종교, 성균관, 한국이슬람교, 한국불교 태고종, 대한천리교, 기독교선교연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등의 학생들에게 수여됐다.

효정봉사상 시상식에서는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한 봉사자를 선정해 시상과 함께 부상이 수여됐다. 지역사회부문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해온 김경태 씨와 수지침 요양원봉사를 계속해온 남선숙 씨, 다문화부문은 다문화가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온 오오느마 미쯔꼬 씨, 청소년부문은 교도소 봉사활동을 해온 김효혜 씨와 백혈병 환우 돕기를 해온 위예성 씨가 각각 수여 받았다.

대구/신지선 기자 sjs2272@naver.com

재단법인 효정세계평화재단(이사장 문연아)은 지난 24일 설립자인 한학자 총재와 국내외 장학생들과 학부모 포함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 청심국제청소련수련원 체육관에서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미국, 독일, 폴란드, 스리랑카, 대만, 태국, 홍콩, 일본, 요르단, 벨라루스, 칠레, 콜롬비아, 가봉, 니카라과, 모잠비크, 카메룬 등 74개국 2444명 장학생에게 장학금 100억원을 전달했다.

한학자 총재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파괴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재는 이어 "장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꿈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해 하나님께서 창조한 건강한 지구, 미래가 있는 인류, 하나님을 중심한 자유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장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해마다 국내 500여 명, 해외 190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500명의 장학생 중에는 10대 종단을 대표하는 80명의 장학생들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다문화 가정 자녀 300여명과 탈북민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됐다. 초종교 장학금은 대종교, 성균관, 한국이슬람교, 한국불교 태고종, 대한천리교, 기독교선교연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등의 학생들에게 수여됐다.

문연아 효정세계평화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장학생과 봉사자들은 국가와 세계의 미래를 짊어질 창의적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효정의 인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때, 미래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이러한 역량을 겸비한 '글로벌 피스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머물지 않고, 여러분들을 전방위에서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효정봉사상 시상식에서는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한 봉사자를 선정해 시상과 함께 부상이 수여됐다. 지역사회부문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해온 김경태 씨와 수지침 요양원봉사를 계속해온 남선숙 씨, 다문화부문은 다문화가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온 오오느마 미쯔꼬 씨, 청소년부문은 교도소 봉사활동을 해온 김효혜 씨와 백혈병 환우 돕기를 해온 위예성 씨가 각각 수여받았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2013년 2월 원모평재단으로 출범해 2016년 10월 명칭과 더불어 문화예술, 학술, 장학평화상 지원 등 그 활동 영역을 확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효정세계평화재단,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국내외 2,444명 장학생에게 장학금 100억원 전달



재단법인 효정세계평화재단(이사장 문연아)은 24일 국내외 장학생들과 학부모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체육관에서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이기성 가정연합 한국회장 대표보고, 경과보고 영상상영, 문연아 이사장 환영인사, 에DEM 코조 전 토고 총리, 서신남독, 장학생 대표 합창, 한학자 총재 설립자 말씀, 장학증서 수여 및 봉사상 시상, 도쿠노 에이지 가정연합 일본회장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해마다 국내 500여 명, 해외 1,90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연아 효정세계평화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장학생과 봉사자들은 국가와 세계의 미래를 짊어질 창의적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아가 한다. '효정의 인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때, 미래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이러한 역량을 겸비한 '글로벌 피스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머물지 않고, 여러분들을 전방위에서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효정봉사상 시상식에서는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한 봉사자를 선정해 시상과 함께 부상이 수여됐다. 지역사회부문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해온 김경태 씨와 수지침 요양원봉사를 계속해온 남선숙 씨, 다문화부문은 다문화가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온 오오노마 미즈코 씨, 청소년부문은 교도소 봉사활동을 해온 김효혜 씨와 백혈병 환우 돕기를 해온 위예성 씨가 각각 수여받았다.

한학자 총재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파괴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꿈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해 하나님께서 창조한 건강한 지구, 미래가 있는 인류, 하나님을 중심한 자유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바란다"며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미국, 독일, 폴란드, 스리랑카, 대만, 태국, 홍콩, 일본, 요르단, 벨라루스, 칠레, 콜롬비아, 가봉, 니카라과, 모잠비크, 카메룬 등 74개국과 국내 장학생 등 총 2,444명에게 장학금 100억원이 전달됐다.

한편 효정세계평화재단은 2013년 2월 원모평애재단으로 출범해 2016년 10월 명칭과 더불어 문화예술, 학술, 선학평화상 지원 등 그 활동영역을 확대 진행하고 있다.

효정세계평화재단 2018년 장학증서 수여 다문화가정 등 전 세계 2444명 장학금 100억원 전달



재단법인 효정세계평화재단은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가평군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체육관에서 국내외 800여명의 장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국내외 74개국 장학생 2444여명에게 장학금 100억원을 전달했다. ©효정세계평화재단

재단법인 효정세계평화재단은 24일 오전 11시에 국내외 800여명의 장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국내외 74개국 장학생 2444여명에게 장학금 100억원을 전달했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해마다 국내 500여명, 해외 190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500명의 장학생 중에는 10대 중단을 대표하는 80명의 장학생들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다문화 가정 자녀 300여명과 탈북민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됐다.

경기도 가평군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재단 설립자인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각 종단의 대표, 국내외 귀빈 200여명이 참석해 장학생과 봉사상 수상자를 축하했다.

장학증서 수여식과 동시에 진행되는 효정봉사상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한 봉사자를 선정해 시상과 함께 부상을 수여했다.

봉사상은 지역사회 봉사, 다문화 자원봉사, 문화예술 재능나눔, 청소년 부문으로 나뉘어 지난해 모범적인 활동을 한 봉사자들이 선발됐다.

효정세계평화재단은 2013년 2월 원모평애재단으로 출범해 2016년 10월 명칭과 더불어 문화예술, 학술, 선학평화상 지원 등 그 활동영역을 확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효정세계평화재단, 74개국 장학생에 장학금



(재)효정세계평화재단(이사장 문연아)은 24일 설립자인 한학자 총재와 국내·외 장학생들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체육관에서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올해는 미국을 비롯 독일, 폴란드, 스리랑카, 대만, 태국, 홍콩, 일본, 요르단, 벨라루스, 칠레, 콜롬비아, 가봉, 니카라과, 모잠비크, 카메룬 등 74개국 장학생에게 장학금 100억 원을 전달했다.

한학자 총재(사진 가운데)는 “장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꿈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해 하나님께서 창조한 건강한 지구, 미래가 있는 인류, 하나님을 중심한 자유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장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세계일보



장학증서수여식 및 봉사상

24일 경기 가평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에서 효정세계평화재단 주최로 열린 '2018년 장학증서 수여식 및 봉사상 시상식'에서 한학자 총재(가운데)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평=하성윤기자

“꿈 이루고 평화 실천... ‘피스 리더’로 성장해달라”

효정재단 2018 장학증서 수여식

가평=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효정세계평화재단(효정재단)은 24일 경기도 가평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에서 '2018 장학증서 수여식 및 봉사상 시상식'을 갖고 국내외 대학생 등 2444 명에게 장학금 100억 원을 전달했다.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탄신(21일·음력 1월 6일)과 기원절 5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다. 효정재단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시자인 문선명·한학자 총재가 설립한 민간 장학재단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수여식에는 설립자인 한 총재를 비롯해 문연아 효정재단 이사장, 이기성 신한국가정연합 한국회장, 도쿠노 에이지 일본전국축복가정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행사장에는 각국 수상 학생을 대표해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브라질, 멕시코, 대만, 가나 등 74개국 1500여명의 대학생과 1000여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

한 총재는 설립자 강연을 통해 “세계 도처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들도 목표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

74개국 대학생 1500여명 참석 한학자 총재 등 수상자들 격려 효정봉사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

다”면서 “어제(23일) 나는 과학자대회를 주관했는데, 청소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과학적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재는 이어 “미래를 생각 못하고 지금 당장 앞만 바라보고 있는 현상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욕심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재는 또 “우리 2세 과학자들이 아름답게 성장한 모습을 보았는데, 이는 우리의 미래 희망”이라면서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건강한 지구, 미래가 있는 인류, 하늘부모님을 중심 삼은 인류 한가족 실현을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순수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연아 효정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효정의 인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때,

미래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효정세계평화재단은 이러한 역량을 겸비한 ‘글로벌 피스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머물지 않고, 여러분을 전방위에서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다짐했다.

에뎀 코조 전 도고 총리는 축사를 통해 “이번 장학금을 받은 많은 학생이 효정의 마음으로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학생들의 꿈은 성장을 기원했다.

수상자를 대표해 한 총재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한 패트리 손길 프리티(22·선문대여학원)는 “영국인 아버지와 오스트리아인 어머니를 둔 유학생으로 한국에 왔다”며 “미래 희망인 저희들이 예술, 스포츠, 산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여 미래의 심정문화세계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를 둔 열두살 사도 카무덴 카스미는 지난 1월 선화한국어학원에서 실시한 한국 어말하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재원이다. “아프리카에서 살다 왔는데, 1년 동안 한국 유학을 하면서 좋았던 것, 기뻐했던 것, 제가 깨닫게 된 것 등을 발표

했다”는 사도왕은 “한국의 심정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즐거웠다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정봉사상 지역사회부문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해온 김경태씨와 수지점으로 요양원 봉사할 해운 남선숙씨, 다문화부문은 다문화가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친 오누마 미스코씨, 청소년부문은 교도소 봉사활동을 벌여온 김효혜씨와 백혈병 환우 돕기에 앞장선 위예성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2013년 2월 출범해 6년째를 맞는 효정재단은 장학금 수여와 함께 문화예술, 학술, 세계평화운동 분야 등으로 영역을 넓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재단은 해마다 국내 500여명, 해외 190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500명의 장학생 중에는 10대 중단을 대표하는 80명의 장학생들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다문화 가정 자녀 300여명과 탈북민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됐다. 초종교 장학금은 대종교, 성군관, 한국이슬람교, 한국불교 태고종, 대한천리교, 기독교선교연합, 가정연합 등의 학생들에게 수여됐다.

IAPD Int'l Conference and Launching of the Korean Chapter





2018 종교지도자 신년 간담회 전경



2018 종교지도자 신년 간담회 케익커팅



세계평화종교인연합 국제컨퍼런스 및 한국 결성대회 합수식



세계평화종교인연합 국제컨퍼런스 및 한국 결성대회 단체사진

“종교인들 힘모아 세계평화 앞장서야”

종파를 넘어선 '종교연합운동'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종교계를 비롯해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종교연합운동'의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시민법인 한국종교협의회다. 창립 50주년이 된 한국종교협의회(제21대 회장 이현영·이하 종협)는 다양한 학술세미나, 봉사활동, 국제교류활동, 종교평화문화축제 등을 통해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며 종교연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실이 지난해 11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비롯한 기독교, 불교, 유교, 유대교, 이슬람교, 대종교, 대한천리교, 천도교, 시크교, 신도 등 20여개 종단 및 종교지도자 500여명이 참여한 세계평화종교인연합(IAPD, Interreligious Association for Peace and Development) 창설과 지난 2월 국내·외 지도자 350여명이 참석한 IAPD 한국 결성대회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전 세계 종교인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행사들을 주도한 종협의 이현영 회장을 통해 IAPD 결성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이 먼저 힘 합친 중요한 기회”

이현영 회장은 “고 문선명 총재께서 세계평화를 위해 평생을 평화운동에 헌신해 오시며 세계적 기반을 마련하셨다면 이제 현역자 총재를 중심으로 현장에 그 평화운동을 정착시키고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세계평화종교인연합(IAPD)을 창설했다”며 “IAPD는 명실상부한 전 세계 종교인들이 동참하는 단체로 자리 매김했다”고 높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 세계 종교인들이 앞장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 현역자 총재의 뜻을 펼쳐고자 가장 먼저 한국 결성대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IAPD가 결성된 배경으로 세계평화를 꼽았다. 그는 “각 종교마다 교리를 전하게 나가는 방법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세계평화다.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은 이런 평화를 갈구하고 추구하는 종교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준 것”이라며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종파를 초월해 마음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종교인들의 연합은 시대의 흐름”



한국종교협의회 회장 이현영.

한국종교협의회 제공

세계평화종교인연합 결성 주도... 20여개 종단 지도자 참여
이현영 회장 “종교인연합은 세계 평화로 가는 길”

“정부, 균형 있는 종교정책 필요... 종교인 과세는 정의 실현”



지난 2월 19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평화종교인연합 국제컨퍼런스 및 한국 결성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한국종교협의회

이 회장은 교리와 신념이 다른 종교인들의 연합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포용과 협력을 특히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한국은 원조, 식민지 시대를 거쳐 근대화 과정에서 이념적 분단 등 많은 갈등을 겪어 왔다. 이 갈등을 포용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교”라고 힘줘 말한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다종교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다종교사회가 되고 있는 상황을 정부와 국민이 인정하고 포용성을 넓혀야 사회가 안정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미국의 홀로코와 일본의 SG1의 포교활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이러한 자세를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IAPD에 기독교의 독립종단이 참여한 것은 의미가 있다. 생각의 전환을 통해 더 많은 종교들이 참여해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균형 있는 종교 정책 절실... 종교인 과세는 정의”

종교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이 회장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이 회장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웃종교를 배척하고 불공정한 종교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종교정책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정책으로 다양한 종교에 적극적인 관심을 주었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이를 위해 종협은 이미 지난 대선 선거 당시부터 이 같은 의사를 피력해왔다. 이 회장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종교특별위원장 등을 만나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 신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균형 있는 종교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 회장이 특히 강조한 사안은 ‘미래 세대의 차별 없는 신앙 활동’과 ‘종교인 과세’다. 그는 “한국종교인구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인구 중 절반을 차지하는 2750만 명이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이 같은 현상은 두드러졌다”며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재 군대에서는 특정 종교의 신앙 활동만 인정하고 있다. 이제는 군대 내 소수종교 장병 신앙보장을 위해 소수 종단 민간 성직자를 위촉하는 등 군내 종교 선택의 자유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종교인 과세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다”며 “종교계라고 납세 의무에 대해 예외가 될 수 없고, 종교인들도 영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종교인들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국민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고 있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정의 실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며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3대 중점 활동으로 미래 한국에 기여할 것”

종협은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창설과 한국 결성대회로 한걸음 더 내딛게 됐다. 이 회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권역별로 종교인연합을 결성해 지역의 종교지도자와 종교단체들과 함께 문선명·한학자 총재께서 일평생 일구어 오신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종교평화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종협은 이를 위해 ▲종교연합운동 ▲종교평화운동 ▲미래인재육성 등을 3대 중점 활동으로 삼았다. 이 회장은 “각 종단을 순회하며 종교평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양한 국제세미나를 통해 해외 종교지도자와 교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IAPD와 한국 결성대회는 종교연합운동의 시작”이라며 “종단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존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보다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고 있고,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인터뷰를 마치며 “앞선 종협 회장 가운데 끝은 죽어 속한다. 끝나는 것은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주어졌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한국 사회와 한국 종교가 가진 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다”며 “배척하지 않고 포용하는 종교, 단순하면서도 생활에 가까운 종교를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종교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 또한 젊은이에게 도움을 주고 남북통일에도 기여하는 등 미래 한국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

하인희 기자 underdog@hankooki.com

2018 효정 종교 지도자 신년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한국종교협의회(회장 이현영·이하 중협)가 19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호텔 3층 에메랄드홀에서 한국의 주요 종단장 및 종교지도자와 미국 ACLC 성직자를 비롯한 해외 종교인 대표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2018 효정 종교 지도자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계일보

“인류는 한가족… 종교인들 세계 평화 앞장서야”

세계평화종교인연합 한국결성대회

국내외 지도자들 350여명 참석
“지구촌 분쟁·환경의 역습 심각
종교 통해 이상세계 실현하자”

정송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문선명·한학자 총재가 제창한 한국종교협의회(회장 이현영·이하 중협)는 19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세계평화종교인연합 국제컨퍼런스 및 한국결성대회'를 개최했다. 신한국가정연합 이기성 회장, 국제기독교선교연합회 안정수 회장, 불교태고종 편백운 총무원장, 최영길 한국이슬람 회장 등 국내 17개 종단장 및 지도급 인사, 전 세계 70개국 150여명의 전·현직 목회자를 비롯한 350여명의 초종교 초종파 지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홍윤종 중협 사무총장 사회로 시작된 결성대회는 개회선언에 이어 문·한 총재의 평화 이상세계 실현을 위한 사상과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 상영, 이현영 회장 환영사, 이기성 회장의 대회사, 선언문 낭독, 축사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결성대회에 이어 각 분과별 세미나가 열려 향후 활동방향을 모색했다.

이현영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은 위험한 상황에 있지만 다행히 세계인의 축재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이며 희망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동시에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정상들이 용평리조트에 모여 평화를 논의했으며 그 자리에 펼쳐진 리틀엔젤스의 공연은 큰 감명을 주었다”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종교인들이 영적 기운을 더해 한반도 평화를 만들고 세계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종교인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종교가 다름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알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자 해원”이라며 “중협은 해원하고 구원하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평화종교인연합 국제 컨퍼런스 및 한국결성대회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Launching of the Korean Chapter of the Interreligious Association for Peace and Development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평화종교인연합 국제컨퍼런스 및 한국결성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이기성 회장은 “문·한 총재는 1991년 목숨을 걸고 북한을 방목해 김일성과 회담하는 등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제시했다”면서 “선학평화상을 제정하고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을 결성하는 등 지구촌 곳곳에 평화 이상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인류 평화 세계의 건설은 종교적

평화 없이는 할 수 없다”면서 “종교인의 실천이 절대 필요하며, 이는 종교단체나 종교인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협은 선언문을 통해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갈등과 분열, 무고한 살상과 테러로 분쟁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실감한다”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의 역습이 인류를 불안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하려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평화가 자리해야 한다”면서 “인류의 궁극적 평화는 종교이며 종교인이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협은 또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은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새로운 세계종교인의 연합임을 천명하며, 그 하나는 한국에서 시작하려고 결의한다”면서 “이는 인류를 하나님 아래 인류 한가족으로 만들어 궁극적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헌신적인 경륜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중협은 1965년 12월 개신교 불교 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6개 종단협의기구로 출범한 국내 첫 범종교협의체의 맥을 잇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13일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을 결성했다. 중협은 국내에서 각 지역별로 결성대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올해 안에 전 세계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감사합니다!!